



[쪽방촌 전문목]
당사자는 모르는
쪽방촌 공공임대 개발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02



Economy

코스피	3099.69 (+104.71)	코스닥	936.21 (+29.90)
금리 (미국 3년)	0.995 (-0.011)	환율 (원/달러)	1107.80 (-4.40) (25일)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진동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물 들어올때 노 젓자” 포장재·의무휴업 등 巨與의 반기업 입법

이슈 짚어보기

규제폭주

현장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거대 여당의 규제 입법에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규제 입법을 발의하기 전에 제도의 효과성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에게 당근 물려줘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은 지난해 11월 1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원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과대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윤미향 자원재활용법 발의 비용상승 등에 기업들 반발 대기업 보다 中소 타격 커

자발적 참여엔 인센티브 등 기업 위한 인프라 갖춰야

개정안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검사를 하고 해당 결과의 제품 결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해당 검사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윤 의원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개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기업들은 반발한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용을 상승시키고 제품출시가 늦어져 제품 경쟁력 측면을 크

게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사전 검사 중 제품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며 전반적인 경쟁력의 하락을 예상했다. 이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식품, 화장품, 의류, 의약품 등 국내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과대포장을 억제하려는 법령의 취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사전 검사 기관 및 인력 부족, 광범위한 사전 검사 대상의 범위 등은 논의 대상으로 지적했다.

현재 법령상 사전 검사가 가능한 곳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두곳 뿐이다. 한국환경공단 조직도 상 제품 포장재질 및 포장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자원순환처 환경포장관리부 2명이다.

박수일 연세대 패키징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들은 타당하다. 독일처럼 신고제로 포괄하여 규제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거의 30년 가까이 이러한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익숙해져 있다보니 기준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류의 유통기간 설정과 같이 자체 혹은 제3자 검사가 진행될 수 있게 추가 교육 및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포장지 사용을 많이 줄인 경우 인센티브 제공까지 같이 제공하는 것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 학과 교수는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에서는 규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기업들은 법에 맞춰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3R(제품설계 단계에서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대기업 앞다퉀 투자-동맹, 수소경제 ‘활짝’

현대차-포스코, 수소사업 맞손 두산그룹도 수소 체질전환 성공

국내 산업계가 수소 경제를 선점하며 또다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동맹으로 상생 구조도 완성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포스코와 ‘수소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이 수소차 등 수소 에너지 활용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는 상황, 포스코가 수소 생산 증대에 박차를 가하며 수소 생태계 조성에 힘을 합치겠다는 목표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하다고 알려진 원소다. 산소와 결합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도 물만 배출해 대표적인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꼽힌다.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가동하는 원리로 움직인다. 폭발 반응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수소전기차를 공식 명칭으로 한다.

핵심 부품은 스택이다. 수소를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로, 산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공기도 정화할 수 있어서 높은 친환경성을 자랑한다.

현대모비스는 전세계에서 손에 꼽는 스택 개발사다. 세계 최초 상용 수소차인 투싼 퓨얼셀에 이어 세계 최초 2세대 수소차인 넥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독일 아우디가 2018년 현대차그룹과 ‘수소 동맹’을 체결한 것도 스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코오롱스택은 단순히 차량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시대에 수소차가 집과 결합, 발전소 대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최소화하는 대신, 수소 에너지가 이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바로 수소연료전지 기반 발전시스템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유럽에 발전시스템 제작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했으며, LS일렉트릭과 손을 잡

고 올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기반 발전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물이나 산업지역, 오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그룹도 두산퓨얼셀이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고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이 수소 드론을 개발하는 등 수소 산업으로 체질 전환에 성공했다.

문제는 수소다. 수소가 우주에서는 가장 흔한 물질이지만, 지구에서는 순수한 상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천연가스에서 추출해야 한다. 때문에 화석연료와 비교해 경제성이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수소 생산에 나서며 수소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포스코에 앞서 한화에너지가 지난해 7월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를 준공했으며, 효성도 울산에 액화수소 공장을 짓고 있다. 대량 생산을 통한 수소 가격 하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백신 점검하는 의료진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홍남기 “‘친환경차 규제’ 과감히 혁파”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등 연내 ‘편의증진 10대 과제’ 개혁

정부가 친환경차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을 없애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28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향후 신약개발과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5건 이상



을 목표로 내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세훈 현대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법무부 차관, 우정원 제백신 사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빅3 산업이 한국 관뉴딜, 혁신성장전략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

당사자는 모르는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개발

“35년 생활터전 한순간에 뺏기나...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 쪽방촌 전문록

① ‘월세 18만원’ 서울역 동자동

정부 ‘2·4 대책’ 동자동 개발 논란
입주민 90% 월세사는 생활수급자
“개발되는지 모르는 주민 대다수”

곳곳에 개발반대 현수막 내걸어
“구청에 입장전달... 행정소송 진행”

서울역 인근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개발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계획에 따라 현금청산 위기에 내몰린 쪽방촌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결사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쪽방촌에 거주하는 600명의 세입자들은 개발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다. 일부 세입자들만이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힐 뿐이었다.

◆입주민90% 쪽방촌 세입자, 개발소식 몰라

지난 24일 오후에 방문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은 서울역 맞은편 KD B생명 빌딩 뒤쪽에 위치했다.

동자동 쪽방촌 일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숙인 혹은 세입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있었다. 주변을 돌아다니는 쪽방촌 세입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도 꺼리는 눈치였다. 익명을 요청한 A씨

정부의 공공주택 정비사업 발표 후 서울역 인근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쪽방촌 일대 건물주들은 현금청산 문제를 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주택공급이 절실한 쪽방촌 거주민은 침묵을 지

키고 있다.

서울에 있는 쪽방촌을 현장 취재하며 이곳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듣고 부동산 약자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공공주택 정비사업을 발표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 정부는 이 일대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는 “쪽방촌이 개발되는 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쪽방촌 일대는 여인숙을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현장 답사 중 여인숙을 하는 B씨에게 개발과 관련한 세입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도 되지 않는다”며 “쪽방촌 입주민 대부분은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 혜택은 크게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B씨의 말대로 입주민의 90%는 월세를 지불하고 사는 생활수급자들이다. 나머지 10%는 쪽방촌 건물주다. 이들은 월 17만~18만원의 월세를 내며 살아

고 있다. 정부가 쪽방촌 거주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관련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이 주택을 공급받아 월세를 지불할 수 있을 지 의문이었다. 주택 공급보다는 쪽방촌 거주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해 보였다.

◆후암특계1구역, 결사반대 입장

정부는 지난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지만 해당 구역 건물·토지주들에게 사전 통보 없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에서 내 건 개발반대 현수막.

/정연우 기자

이 사업을 발표하고 밀어붙이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발에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강제수용에 따라 현금청산을 당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물게 될 수 있어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 4만7000㎡에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 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다.

쪽방촌 일대를 답사하며 개발 반대 현수막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쪽방촌 소유주로 구성된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이

었다. 현장에서 만난 오정자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장은 “현재 용산구청에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모아 지난 19일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26일에는 청와대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며 “개발 반대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며 쪽방촌 입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쪽방촌 소유주 C씨는 “지난 1985년 이곳으로 이사해 35년 넘게 동자동에 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생활터전을 빼앗기게 생겼다”라며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후암특계 1구역으로 지정됐던 동자동 일대는 지난해 5월 지구단위 도시계획기간이 만료되면서 서울특별시와 용산구청 등의 새로운 용역수주에 의거해 재정비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 및 건물주들은 모든 개별 개발행위를 중지하고 2021년 연말에 발표되기로 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구지정 여부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오늘부터 코로나19 AZ백신 접종 시작

요양병원·보건소 총 549곳에 배송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첫 투약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도착한 AZ백신이 백신 전용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으로 K-방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돼 의약품 전문 물류센터인 지트리비엔티 물류센터에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5만회분은 25일 오전 5시 50분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으로 배송을 시작했다. 냉장유통차량 56대가 이동해, 전국 257개 보건소, 292개 요양병원으로 이송했다.

전일 물류센터 이송과정에서 제주로 배송되던 일부 백신 수송 용기 온도가 적정 온도(2~8도)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다. 온도를 이탈한 백신들은 전량 회수되고, 대체 차량이 투입되며 배송은 무사히 이루어졌다. 정부는 추후 회수한 백신 폐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배송이 완료된 백신들은 26일부터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당국은 1호 접종자는 특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백신 접종 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을 매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접종일 다음날인 27일부터 누적, 일일 접종현황과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며 “백신의 공급량 확정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월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K-방역 시즌2’로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내수 부진... 올 성장률 전망치 3%대 유지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 동결
“국내경제 회복세 완만할 것 예상”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3.0%)대로 유지됐다.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 예상과 달리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도 아직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지 않은 만큼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동결기로 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이후 이달까지 모두 여섯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

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치도 바뀌지 않았다. 한은은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0%, 내년 2.5%로 유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더딘 점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금통위 역시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

SK, 3년내 국내 수소사업 생산기지 건설

》1면 ‘대기업 앞다퉀 투자...’서 계속

특히 SK그룹은 수소를 생산부터 유통까지하는 밸류 체인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소 시대에 대비했다. 지난 1월 미국 플러그파워 지분 약 10%를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25일 아시아 수소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공동 사업을 본격화했다.

SK는 플러그파워와 합작법인 ‘아시아JV’를 설립하고, 2023년까지 국내에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 등 수소 사업 핵심 설비 생산 기지를 건설해 아시아 전역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영 전력회사와 상용차 기업과 협업체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수소가 친환경적이지 않

다고 지적한다. 천연가스를 분해하는 방식이라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탄소가 배출된다는 이유다. 이같은 수소를 부생수소, 그레이 수소라 부른다. 때문에 에너지 업계는 수소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따로 포집해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는 ‘블루 수소’를 추진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만드는 ‘그린 수소’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욱 기자 juk@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척척금융... “팔방미인 미래 노다지”

데이터가 돈이다

② 마이데이터 시대

의료부터 은행·자산관리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활용 무궁무진 비대면 시대에 기업들 사업 강화

OO페이 등으로 데이터가 쌓였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쌓인 데이터가 기업 혹은 정부의 소유물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쌓인 데이터는 소비자 각각의 것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이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은 이날 기준 총 28개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5곳과 여신전문금융회사 6곳, 금융투자, 상호금융, 저축은행 각 1곳, 핀테크 14곳이다.

◆금융데이터 분석, 마이데이터 본허가 받아야

지금까지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온 핀테크 기업들은 정보를 긁어오는(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예컨대 소비자가 토스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이체 내역을 보기 위해 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토스는 해당 은행에서 스크래핑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분



석해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것. 그러나 이 경우 일부 금융사들은 스크래핑을 허용하지 않아 모든 계좌에 있는 자산을 분석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API 방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일정 규격에 맞게 받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누구나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을 허가 받은 기업에 한해 표준API를 통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현재는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난 기업을 중심으로 표준 API 유지비용 등을 나눠내는 것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미래 수익원 창출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더욱 편리한 디지털 금융을 원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다. 기왕이면 하나의 앱에서 수

입·지출을 관리하고 투자상품까지 효과적으로 가입하길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 지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 또한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아키텍처로 서비스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PI서버 비용 외에도 서비스 개발 비용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

지만 지금 시기를 놓치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분야와 결합하느냐에 달라

이들은 대표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전망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패턴이 유사한 고객별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뱅크샐러드의 경우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자금상황, 소비패턴을 분석해 대출 상품이나 카드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가입할 경우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낸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의 현금흐름을 분석해 연체예측 및 미납 등을 방어하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통해 당장의 수익원을 확보할 수 없지만, 소비자의 애프터마켓을 높여 부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들을 통한 생애주기별 관리서비스도 출시한다. 특히 여기에는 통신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사회초년생의 대안신용평가를 마련할 수 있다. 휴대폰 통신공과금 납부와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소비습관 등을 분석해 사회초년생에 맞는 대출상품을 추천한다. 은퇴자의 경우 연금자산현황, 예상 수령금액 등을 분석해 은퇴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안도 나온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원은 “개인금융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SNS, 위치정보, 의료정보 등 타 분야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할 수 있다”며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안전 및 보안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쇼핑몰 규제, 골목상권에 등 돌리게 만들어”

>> 1면 '이슈 짚어보기'서 계속

유통산업발전법 실효성 의문 잇따라

◆스타필드도 의무휴업?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도 뜨겁다. 21대 국회에서 15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그중 통과가 유력한 것은 홍익표 의원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 통상업보존구역에서 상권이 형성된 상업보존 구역으로 확대한다. 계열사 재산을 합쳐서 10조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강제한다. 스타필드·롯데몰이 복합쇼핑몰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보호와 휴업일이 따로 없는 복합쇼핑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사람들이 단순히 쇼핑만 하러 복합쇼핑몰을 찾지 않으며 단순히 즐기러, 유희를 위해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복합쇼핑몰을 닫는다고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대 여당이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소상공인의) 적을 만들기에만 급급해 이런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을 즐기러 가는 곳

이기 때문에 규제를 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구를 보아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통한 규제가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이익단체들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식자재 마트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영세한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숨겨진 통로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방치하는 ‘구멍’이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발도 거세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영업제한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불안집에 부채질하는 경우라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영양군 공고 제2021-150호

영양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산60번지 일원의 영양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영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결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021. 2. 26.

영 양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영양제2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산60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111,271㎡
- 라. 시행자 : (주)영양제2풍력발전

2.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4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석보면 삼의리 산60번지 일원	-	111,271	111,271	-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면적변경 - 당초 148,068㎡ → 변경 111,271㎡ (감 36,79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발전기 5기 제척)

3. 공람사항

가. 영양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간 : 2021. 2. 26. ~ 2021. 3. 11.까지(14일간)
- 나. 장 소 : 영양군청 지역경제과, 석보면사무소

5. 의견제출

- 가.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나. 제출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내 지역경제과 도시담당 및 석보면사무소
- 다. 의견제출 내용 : 영양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지역경제과(☎054-68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이커머스 영역 무한 확장... 매출 26兆·시장 1위

높은 적립률, 서비스 간 연계 혜택 협업 통해 배송·결제 고도화 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검색 포털로 시작한 네이버가 이커머스(온라인 쇼핑) 영역을 무한 확장하며 가치를 높이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강력한 네이버 플랫폼을 무기로 결제부터 배송에 이르는 쇼핑의 기본적인 과정부터 높은 적립률과 네이버 서비스 간 연계 혜택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 거래액은 2019년 20조원을 넘긴데 이어 지난해에는 26조원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1위 사업자다.

◆네이버 이커머스 가치 '재조명'

최근에는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의 기업가치가 30조~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덩달아 네이버 이커머스의 가치까지 재평가 받고 있다. 네이버쇼핑이 쿠팡보다 월등한 고객 수와 거래액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시가총액이 56조원에 불과하다며 향후 네이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결제자 수는 2000만명, 거래액은 26조



쇼핑라이브 전용 스튜디오. /네이버

8000억원 규모다. 쿠팡의 활성 고객 수는 1485만명, 거래액은 20조9000억원 수준이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61조원 규모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쇼핑과 쿠팡의 점유율은 각각 17%와 13%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네이버의 목표가를 50만원으로 상향하는 추세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은 높은 포인트 적립률, 웹툰·뮤직 등 자사 콘텐츠와의 연계 강화, 판매자 대출 등을 강점으로 확고한 생태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쿠팡과 비교해 네이버가 절대 부족하지 않기에 목표시총을 80조원으로 제시하는 만큼 목표주가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

했다.

쇼핑과 금융 간 시너지 강화도 높게 평가된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와 소액 후불 결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이용자를 위한 혜택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까지 후불 결제를 지원할 전망이다.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판매자 대출에 이어 구매자를 위한 신용결제까지 지원하면서 네이버쇼핑에 대한 충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협업 통해 공급-배송-결제 구조 갖춰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경쟁력이 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배송 및 유통 전문 기

업과 협업하는 전략을 통해 제품 공급부터 배송, 결제까지 완벽한 구조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빠른배송이 중요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과 지분 교환을 통해 협력에 나섰다. 현재 양사는 '지정일 배송'과 '오늘 도착' 등 빠른 배송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또한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와 재고 일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만나 협업을 논의했다. 온·오프라인 유통 1위 업체 간 만남이다.

네이버는 신세계그룹을 통해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신세계그룹은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시너지를 도모할 전망이다.

이달 초에는 현대카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전용 신용카드(PLCC)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PLCC는 신용카드사와 파트너사가 전사적 협력 관계를 맺고 기획, 브랜딩, 운영, 마케팅 등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하는 신용카드다. 개발되는 카드를 통해 콘텐츠와 커머스 영역에서 이용자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도 두각

성장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도 네이버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라이브 쇼핑은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대화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방송 형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라이브 판매가 가능해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정식 론칭한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누적 시청부 1억 뷰를 돌파했고, 쇼핑라이브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 역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네이버는 쇼핑라이브 수수료를 매출의 3% 수준으로 책정했다.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등장하는 상황 속 네이버는 예능과 라이브 커머스를 결합한 '예능형 쇼핑라이브 콘텐트' 등도 새롭게 선보이며,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방송을 진행하는 판매자가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SME)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SME를 위한 쇼핑라이브 전용 스튜디오를 오픈하며 SME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에 나섰다. 11개의 라이브 스튜디오 공간과 설비를 갖췄으며, SME들은 최신 스마트폰, 조명, 모니터, 짐벌 등 필요한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도 상주하고 있어 일대일 코칭도 가능하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연임기간 1년 제한... '후계자 양성' 최우선 과제 부상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재추대

지배구조 내부규정 만 70세 제한 부회장 3인, 사법리스크 골머리 "무거운 책임감... 조직안정화 헌신"

김정태 하나금융회장(69)의 재연임이 확정됐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정에 따르면 회장의 나이는 만 70세를 넘길 수 없다. 만 69세인 김회장의 연임기간은 1년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김 회장은 다음 달 개최되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임기 1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김 회장의 연임은 코로나19 상황과 후임 후보자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하나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사상 최대(2조6372억원)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하나금융은 김 회장의 세 번째 임기(2018~2020년)동안 2조원 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만 놓고 봐도 전년 같은 기간(3504억원)보다 52% 증가한 5328억원을 기록했다.

김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 극복과 그룹의 조직안정화에 헌신하겠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원형사진) 김정태 하나금융그룹회장

다"고 말했다.

◆김정태 회장 만 69세... 1년안에 후계자 찾아야

김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후계자 양성이다. 하나금융지배구조 내부규정에 따르면 회장의 나이는 만 70세를 넘길 수 없다. 만 69세의 김회장의 연임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 이유다. 이에 따라 1년안에 후계자 양성이란 과제가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후계자양성을 위해 함영주, 이진국, 이은형 3인 부회장 체

제를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이들 대부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함 부회장의 경우 현재 채용비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뒤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진국 부회장은 비서에게 자신의 주식거래를 맡겼다가 선형 매매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법률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하은행장, 하나금융대표 교체

하나금융은 이날 그룹임원추천위원회 열고 5개 계열사의 CEO 후보추천을 마무리한다.

하나은행 신임 행장에는 박성호 하나은행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성호 부회장은 김 회장 체제에서도 인도네시아 법인 부회장과 IB서비스 자회사 하나아이앤에스(현 하나금융티아이)를 성공적으로 지내 글로벌과 디지털 사업역량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다.

하나금융투자에는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이 물망에 오른다. 이 부회장은 중국 최대 민영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그룹 총괄부회장과 베이징대 고문교수 등을 거쳤다. 해외네트워크가 워낙 좋고 중국 핵심금융권 인맥을 보유하고 있어 김 회장의 눈에 들었다는 평이다.

현 지성규 행장은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진국 대표는 주식 선형매매 의혹관련 법률리스크를 각각 안게 되면서 연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장경훈 하나카드사장과,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오화경 하나저축은행장은 모두 연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나유리 기자 yu115@

금융을 잘하는 신한금융 그룹의 신한카드

교육비+입사축하금 350만(경력자 우대)

고객센터PDS(오토콜) 공채 2명

"지능화 발전"으로 통화성공률 효과 UP

▶ 지원자격: - 신입 / 경력 - 경력자우대(전직소득보장)

▶ 담당업무: 상담 동의한 고객에게 전화 상담업무

▶ 지원접수처: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11 더프라임빌딩 23층 신한 용산센터 2실

※ 근무시간: 10시~5시(주5일근무) ※

FAQ

1. 상담업무를 해보지 않은데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한번은 처음입니다. 회사에 교육담당자와 매니저가 단계적으로 교육해드리고 숙증까지 최우선으로 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교육비 350만(경력자 우대)
- 고등학생, 대학생 2차내 학자금(연4회)
- 1~18개월차까지 정액급여지원
- 매년 적립금 지급제도 운영

3.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 1년차평균: 월200~250만원대
- 2년차평균: 월300~400만원대
- 상위명칭: 업계최고 고소득발생
* 수입은 내가 알고싶은 만큼 묻는 능력과 출습니다

4. 다른 회사도 많는데 꼭 신한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신한카드 마케팅 동고객 대상으로 보형상품을 통해 고객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판매하고 가치를 사는 일을 하며 성사율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인크루팅/육성 전문실장 : 임연정 (문자환영)

010-3043-3574

LG, 계열사 내 여성 사외이사 확대

주중서 여성 사외이사 선임 안전 상정

LG 계열사들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이사회 다양성을 제고한다.

LG는 올 3월 LG하우시스와 지투

알, LG전자와 LG유플러스 및 ㈜LG가 이사회를 열고 주중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전을 상정한다고 25일 밝혔다.

LG하우시스는 서수경 숙명여대 환

경디자인과 교수를 내정했다. 서 교수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 실내디자인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고부가 토탈 인테리어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려는 LG하우시스의 경영자문 역할을 하게된다.

지투알은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

다. 2조원 미만 상장사로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LG는 내년 8월부터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앞장서 준수하고, 이사회에 전문성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김재욱 기자 juk@

‘개인정보 침해 vs 소비자 보호’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대리전 양상... “두 수장, 끝장토론으로 해결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새로운 발전 수용할 법률 필요”
“세계적으로 전례없어... 反표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 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이 격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빅테

크 내부 거래의 외부청산 필요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두고 정무위원 소속의원들과 업계·학계 인사 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결제원 상무이사 등이 진출인으로 참석했다.

정순섭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 “최근 다양한 지급 수단의 등장과 법화의 지급수단으로 역할이 변화하면서 금융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비현금지급수단의 발전에 따른 금융소외현상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수용할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빅테크의 내부거래에 대한 금융결제원 의무청산 조항이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기진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의 은행계좌 연계 거래 및 내부거래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보내어 청산할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빅테크가 제공해야할 정보 범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결제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상위법에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동현 교수는 내부거래의 외부청산에 대해 “외부청산 시 내부 송금 정보가 제공되며, 거래 시 어떠한 행위를 한 지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급결제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안 교수는 최근 한은과 금융위 간 갈등에 대해서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두 기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형국인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며 “각 주장들이 실무진을 데리고서 끝장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디테일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소지 가능성”

개인정보보호위 ‘체계 형해화 우려’
제18조 적용 배제... 원칙 맞지 않아
정보 범위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빅브라더(사회감시·통제 권력) 법’이라고 지적한 한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5일 전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의에 “개정안의 일부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돼야 하며, 개별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전금법 개정안은 제18조 전체의 적용을 배제해 보호법상의 이념과 원칙에 맞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제공토록 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 및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

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위원회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인 개정안에 담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의원은 “전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빅브라더 법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 혁신기업 육성 프로그램 5기 모집

범농협 계열사와 사업제휴 기회

NH농협은행은 다음달 24일까지 혁신기업 육성·협업 프로그램 ‘NH디지털 챌린지+’ 5기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NH디지털 챌린지+’는 디지털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투자·법률·마케팅·재무 분야 등의 컨설팅과 범농협 계열사와의 사업제휴 기회 및 후속 투자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번 ‘NH디지털 챌린지+’ 5기의 테마는 ‘NH와 꿈꾸다’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플랫폼서비스, 헬스/인슈어테크, 농업, ESG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과 범농협 협업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혁신성 ▲사업성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NH디지털혁신캠퍼스내 업무공간 ▲역량강화 전문교육 ▲맞업데이(협업세미나) ▲1대1 오피스아워 ▲데모데이 ▲네트워킹 행사 등이 제공된다.



권준학 은행장은 “‘NH디지털 챌린지+’는 국내 금융권 최고 수준의 협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농협은행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디지털 신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밴터스 홈페이지에서 ‘NH디지털 챌린지+’를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우리금융, 경영진 ‘디지털 인사이트’ 특강

디지털 마인드 제고

우리금융그룹이 경영진의 디지털 마인드 제고와 디지털전환(DT) 문화 확산을 위해 손태승 회장 및 지주사 경영진 대상 ‘디지털 인사이트’ 특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인사이트 특강은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디지털 분야 실무 담당 직원들이 직접 강사가 돼 오는 6월까지 매월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4차 산업 디지털 전문분야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마이데이터, 오픈 API, 빅데이터, 스마트뱅킹, 블록체인, 페이먼트, 디지털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별 이론 및 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손회장과 경영진들은 실무에서 근무 중인 젊은 직원들과 소통은 물론 디지털 분야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금융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라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도를 높여 올해 경영전략인 ‘디지털 범버원 도약’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은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 리버스멘토링, 우리디지털인사이트뿐 아니라 KT와 빅데이터·AI 공동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산학연계를 통해 직원들의 디지털 신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손태승 회장은 “이제 디지털부문은 미래를 담보할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특강이 경영진부터 디지털 마인드를 갖추고, 그룹 전체에 디지털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석 기자

KB 모바일 인증서 가입자 700만명 돌파

KB국민은행은 25일 ‘KB모바일인증서’의 가입자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B모바일인증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2019년 7월 자체기술로 개발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를선정돼 지난달부터 국제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에서KB모바일인증서로 간편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KB금융그룹 내 KB증권, KB카드,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 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가 사용 가능하다.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모바일인증서는 KB국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거래가 가능하다. 복잡한 암호 대신에 패인·지문·페이스 ID(아이폰) 등 고객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서는 통장 개설부터 이체 및 상품가입까지 금융업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현대제철, 친환경 시대 先대응... 소재 경량화·솔루션 개발

미래 지속성장 기반기술 확보 추진
아이오닉5 전용 특수강 소재 생산
“현대차 연구센터와 실시간 협업”

현대제철이 수익성 확대를 위해 아이오닉5 등 친환경차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대응에 나선다. 친환경 자동차강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시대로의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는 전기차 모델을 늘리고 생산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기아를 선두로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친환경 모델리티 체질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현대차는 올해 친환경 전동화 모델 판매비율을 글로벌 판매량의 1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적용한 아이오닉5를 공개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 11종을 포함해 23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이고 글로벌 기준 연 100만대 판매



현대제철 직원이 자동차 강판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량화·전기차 시장 선점’

현대제철은 체코 오스트라바시 핫스탬핑 공장에서 연간 340만장 규모의 고강도 차량부품소재를 생산해 현대차 체코 공장에 납품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핫스탬핑은 고온으로 가열된 철강소재를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성형한 뒤 금형 내에서 급속 냉각시키는 공법이다. 현대제철은 이처럼 차세대 자동차 시장 선점 일환으로 현지화 대응과 자동차강판 등 부품 소재 연구개발 및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현대제철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충남 예산공장에 22기, 울산공장에 27기의 핫스탬핑 라인을 보유해 이 분야에서 국내 최대 사업장을 구축하고 있다. 핫스탬핑 관련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등 완성차가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차량 경량화가 필수다.

현대제철은 전기차에 적용되는 스틸 배터리 케이스도 만들었다.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와 무게는 비슷하지만 원가는 15%가량 낮았다. 현대차와 협업해 ‘10Pa(기가파스칼) 소재’도 개발했다. 이 소재는 차량 뼈대 역할을 해 외부

충돌에 견디는 ‘센터필러’를 만드는 데 쓰인다. 기존 자동차 외부 판재보다 2~5배의 강도를 지닌다.

또 현대제철은 아이오닉5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에 적용되는 특수강 소재에 대해서도 개발 및 생산을 진행 중이다. 엔진, 변속기를 이루는 주요 부품 소재인 특수강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전기차의 대당 소요량이 약 40%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최근 개발된 E-GMP 적용 시 모터와 감속기에 적용되는 소요량이 늘어 전체적으로 약 20% 수준의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차 연구 개발센터와의 실시간 협업 및 피드백이 자동차 소재를 개발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도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통해 미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차 소재 시장 경쟁력 강화

현대제철은 향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차와 전기차 소재 시장 공략을 위해 자동차 통합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제철은 2019년 업계 최초로 자동차 전문 브랜드 ‘H-솔루션’을 선보였

다. H-솔루션은 자동차 소재와 응용기술을 적용한 고객맞춤형 자동차 솔루션 서비스다. 고객들이 친환경적이며 경량화된 차량을 만들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게 현대제철의 구상이다.

이 일환으로 현대제철은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현대차, 기아, GM, 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고객사와 비대면 온라인 H-솔루션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엔 홈페이지에 ‘AE서비스 포털’을 오픈해 고객사와의 빠른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차 모델에 기반한 H-솔루션 선행영업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를 현대차 ‘E-GMP’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전기차 등 차세대 모델리티 소재 개발 및 저탄소 친환경 기술개발 등 미래 지속성장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온라인 콘퍼런스는 현대제철만의 고품질 자동차 소재를 홍보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력 및 서비스를 글로벌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킬 수 있는 자리였다”며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효성중, 나주산단에 30MW급 MVDC 공급

(신재생에너지용 송배전시스템)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공급계약 체결
조현준 회장 “독자기술 연구개발 성과”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용 송배전시스템인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를 국산화한 데 이어 첫 수주에 성공했다.

효성중공업은 전남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일환으로 최근 국내 기업 최초로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중앙 직류송배전시스템인 30MW급 MVD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주한 MVDC는 올해 말까지 전남 나주혁신산단에 설치될 예정이다. 30MW급 MVDC는 6만7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MVDC는 1.5~100kV의 중앙 전기를 직류로 송전하는 시스템이다. 직류송전은 현재 송전방식인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시 전력손실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송전 설비를 활용해 40%

많은 전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중앙 규모의 전기로 발전된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위해 MVDC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효성중공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 MVDC 기술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도 한층 효율적인 송전이 가능해졌다. 특히 독자기술을 기반으로 직류송배전시스템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국내 직류송배전 시장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투자비용 절감 ▲설치 및 유지보수 용이 등 전력 산업의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의 독자기술에 대한 집념을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전력 산업부문 토탈 에너지 솔루션 프로바이

더로서 차세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이번 MVDC 계약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와 저압 직류송배전시스템(LVDC)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LVDC는 저압 직류송배전시스템으로 산간지역의 전압 안정화를 위해 사용된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강원 산간에 40kW급 LVDC를 설치할 예정이다.

LVDC 수주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효성중공업은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모든 범위의 전압 직류송배전시스템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최초 기업이 됐다.

효성중공업은 2017년 제주도 행원실 증단지에서 해상풍력 연계용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한국전력공사 양주변전소에 120kV 200MW HVDC를 설치하는 국가과제를 진행 중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대한항공-네이버, 항공서비스 혁신 맞손

직·간접적 사용자 경험 개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1인자인 대한항공과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네이버 양사가 항공 서비스의 대변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항공과 네이버는 지난 24일 오후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네이버의 플랫폼, 콘텐츠, 신기술을 대한항공의 항공서비스 제고에 활용한다면 고객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항공산업 추세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와 대한항공은 ‘사용자 경험 증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갈 것”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왼쪽)와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이라며 “네이버는 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 서비스 분야에 한층 ‘스마트함’을 더하고, 동시에 네이버 서비스 전반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항공 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용자 경험(UX)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편의성 향상을 통한 고객 가치 제고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김수지 기자

LG전자 공기과학연구소 국가 공기질 시험기관 인정

LG전자 공기과학연구소가 업계 최초 국가 공식 인증 공기질 시험기관이 됐다.

LG전자는 최근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공기과학연구소를 미생물 및 미세먼지 분야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KOLAS는 전문 평가사가 국제 기준에 맞춰 대상 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해 공인시험능력을 인정

하는 곳이다.

LG전자는 가전제조기업 연구소 중 처음으로 공기 관련 미생물 및 미세먼지 분야 KOLAS 시험기관 인정을 취득했다.

해당 규격은 ▲필터의 항균성능 평가(ISO 20743), 플라스틱의 항균성능 평가(ISO 22196), 미생물 양의 정량적 계측(KS J ISO 7218) 등 ‘미생물 분야’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제거능력 평가 및

표준청정면적 산출(KS C 9314), 공기청정기의 에너지효율 평가(효율관리기 자체 운용 규정) 등 ‘미세먼지 분야’다.

LG전자는 2018년 공기과학연구소를 처음 설립해 차세대 에어솔루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전담시켜왔으며,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와 휘센 에어컨, 제습기 등 제품 전반에 적용했다. 최근 미세먼지, 수질오염, 식품위생 등 사회·환경 문제의 급격한 증가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고객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혼다코리아, ‘뉴 오딧세이’ 국내 출시

안전·편의 등 기존 강점 업그레이드

혼다코리아가 가족 모두의 안전, 편의는 물론 이동의 즐거움까지 실현하는 패밀리 미니밴 ‘2021년형 뉴 오딧세이’를 25일 국내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21년형 뉴 오딧세이는 부분변경 모델로써 안전 및 편의사양, 공간 활용

성 등 오딧세이의 강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온 가족을 위한 최고의 이동 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가족을 위한 편리한 공간 활용성도 극대화됐다. 2열 캡틴 시트에 폴딩 기능이 추가되어 탈착이 한층 용이해졌으며, 2열 매직슬라이드 시트로 전후 및 좌우 슬라이딩이 자유로워 다양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유효기간 없는 평생인증 KB모바일 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어디죠?

한 번 발급
갱신없이
다 쓸 수 있어요

간편비밀번호, 지문,
Face ID로 쉽게!

누구나
이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KB금융그룹 계열사
앱에서도 OK!

비밀번호 보안을
더 높여주는
다용도 인증서

역시 인증도
KB국민은행이 앞서가네



KB모바일인증서 발급 경로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KB모바일인증서는 14세 이상 1인 1기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 미사용(1년 이상)시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채널, 이체한도 및 이용기기 등 KB모바일인증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220호(2021.02.03), 광고물 유효기간 2021.12.31까지

LS, 글로벌 전력 인프라·스마트에너지 사업 경쟁력 키운다

해외 사업 안정성·경쟁력 향상 목표
그룹 차원 지역전략 수립·지원
현지 진출 계열사들간 협력 강화

LS그룹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와 스마트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로, “해외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법인들이 독자적인 사업역량을 갖출 것”을 당부한 바 있다.

LS는 이를 위해 중국, 아세안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지역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진출한 계열사들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S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핵심 기자재 및 기술 공급과 해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



LS일렉트릭 베트남 현장 모습.



LS전선 이집트 공장에서 전선을 생산하는 모습.

LS

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계열사인 LS전선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전기차 부품 사업 등을 중심으로 미국, 폴란드,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에 활발히 투자하며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을 도모했다. 1월 이집트에 전력케이블 공장을, 지난해 10월 인도 생산법인(LSCI)을 준공하는 등 투자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만·미국·네덜란드·바레인

등에서 1조원 이상의 해저케이블 사업을 수주했고, 11월에는 세계 1위 해상풍력개발 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와 ‘5년간의 초고압 해저 케이블 우선공급권’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태양광 케이블로 국제 기술, 안전 인증을 획득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태양광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를 비롯해 전북 군산 유수지 등 30여 곳 이상의 태양

광 발전소에 태양광 케이블을 공급했고, 해저 케이블의 노하우를 활용한 수중 케이블을 개발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LS비나가 2019년 베트남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총 5000만달러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알루미늄이 전기차 경량화 경쟁에 따른 핵심 소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일본 전장 업체와 전기차용 알루미늄 전선 공급을 체결하고 양산에 돌입했

다.

LS산전에서 이름을 바꾼 LS일렉트릭도 앞으로 10년간 연 10% 이상 성장하고 글로벌 사업 비중을 70%, 디지털 신규 비즈니스를 50% 넘겠다는 ‘드라이브 체인지 포 2030’을 발표하고 혁신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중국 현지 ESS 시장 진출을 위해 창저우 쿤란 지분 19%를 인수했으며, 10월에는 가상 전시 플랫폼 ‘LS E-WORLD’를 구축하고 오픈해 글로벌 고객과 온라인 소통도 이어갔다.

지난해 9월 태국철도청이 발주한 약 130억원 규모 철도신호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하며 태국 누적 1340억원을 수주하는 등 능력과 기술을 앞세워 수출 실적도 쌓아가고 있다.

LS 관계자는 “LS는 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관련 인재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넷플릭스, 올해 韓 콘텐츠에 5500억 투자

“지금까지 韓 콘텐츠에 7700억 투자”
한국에 콘텐츠 스튜디오 2곳 마련

“2021년 한 해동안 한국 콘텐츠에 약 5500억원 가량 투자하겠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K-콘텐츠 확보를 위해 연내 약 5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90여개국에 수출되는 K-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해 전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K-콘텐츠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25일 ‘콘텐츠 로드쇼 See What’s Next Korea 2021’을 열고 이 같은 투자 방침을 밝혔다.

김민영 넷플릭스 한국·동남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콘텐츠 총괄은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에 약 770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 콘텐츠 제작 시장과 동반성장 하고자 노력했다”며 “올 초에는 장기적인 제작 기반을 다지기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 겸 콘텐츠 책임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면 캡처

위해 한국에 콘텐츠 스튜디오 2곳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민영 총괄은 “올해는 한 해 동안 한국 콘텐츠에 약 5500억원 가량 투자하겠다”며 “전세계에 한국 콘텐츠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넷플릭스와 한국 창작 생태계의 동행 ▲영화와 사랑에 빠진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의 ‘넥스트’의 순으로 열렸다.

실제 넷플릭스는 ‘킹덤’, ‘인간수업’, ‘스위트홈’, 최근에는 영화 ‘승리호’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K-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K-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전세계 2200만 가구가 ‘스위트홈’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킹덤의 경우는 ‘한국형 좀비’가 알려지는 계기가 돼 킹덤에 나왔던 한국형 ‘갓’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올해도 다양한 오리지널 신작을 선보일 방침이다. 좀비 사극 ‘킹덤: 아신전’부터, 좀비 학원물 ‘지금 우리 학교는’, 하드코어 호러 ‘지옥’,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오징어 게임’ 등이 제작 진행 중이다.

한편, 넷플릭스 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TV(IPTV)와 OTT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나서면서 콘텐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KT, ‘게임박스’서 토종 인디게임 키운다

한국인디게임협회 협력

KT는 25일 자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게임박스’에 인디게임 3종을 신규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인디게임은 편린의 ‘소원’, AB Shot의 ‘IRA’ 사전 출시 버전과 엑스포테이토의 ‘컴온베이비’로 게임박스에 회원 가입만 하면 모바일과 PC, IPTV를 통해 기기의 경계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번 인디게임 출시를 KT와 한국인디게임협회가 이어온 협력의 결과다. KT는 인디게임 개발사 육성과 진흥을 위해 내달 말 한국인디게임협회가 주관하는 인디오락실에도 스폰서로 참여한다.

게임박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편린의 ‘소원(SOWON)’은

2018 에픽메가게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다. ‘소원’이라는 캐릭터가 아빠를 찾아가는 과정을 마치 동화 같은 그래픽으로 구현했다. ‘IRA’는 동양 판타지 콘셉트의 슈팅 액션 게임이다. 엑스포테이토가 개발한 ‘컴온베이비’는 여러 슈퍼헤이비 캐릭터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캐주얼 게임이다.

인디게임 3종의 신규 출시를 기념해 KT는 내달 12일까지 2주 간 게임박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인디게임을 즐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니터와 헤드셋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KT는 오는 6월 말까지 게임박스 월정액 5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ini

LGU+, 알뜰폰허브서 ‘대동단결’ 프로모션

U+알뜰폰 가입자 대상 혜택 강화

LG유플러스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알뜰폰허브를 통해 U+알뜰폰 가입자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하는 ‘대동단결’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알뜰폰 허브는 2015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요 알뜰폰 사업자와 운영을 시작한 알뜰폰 통합 포털이다. 알뜰폰허브에 참여중인 U+알뜰폰 사업자는 미디어로그, LG헬로비

전, 인스코비,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큰사람, 스마텔, 아이즈비전 등 총 8개 사업자다.

이번 프로모션은 알뜰폰허브와 LG유플러스와 함께 운영하는 단독 프로모션이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알뜰폰허브를 통해 U+알뜰폰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30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민족 쿠폰 최대 1만원을 증정한다. 5G요금제 2종 및 LTE요금제 3종에 가입하는 고객은 1만원 쿠폰을, 그 외 요금제는 5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현대자동차

‘2021 포터II’ 출시

현대자동차가 25일 안전과 편의성을 강화한 소형 트럭 ‘2021 포터II’를 출시했다.

2021 포터II는 기존 선택사양으로 운영되던 안전사양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와 차로 이탈 경고(LDW) 등이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됐다. 또 기존 상위 트림에만 기본 적용되던 안전, 편의 사양을 하위 트림까지 확대 적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SK브로드밴드 여주위성센터가 올해부터 ‘100%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변한다.

SK브로드밴드는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그램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 최종 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전력 소비자(기업)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요금(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기업이 낸 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쓰인다.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으로부터 구매하



여주위성센터 전경.

/SK브로드밴드

재생에너지 전력은 연간 615메가와트시(MWh)다. 약 150가구(4인 가구 기준)의 1년 사용량 수준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 전력 전체를 여주위성센터 운영에 투입해 ‘100% 친환경 에너지’ 사업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본격화한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김나인 기자

中 긴축 우려에... '동양의 나스닥' 항셱테크 ETF 철렁

인민은행, 약 44조 유동성 회수
외인 자금 이탈에 투자심리 위축
국내 관련 ETF 5일만에 14% ↓

미래성장 주도 기대감에 관심 ↑
전문가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

홍콩 항셱테크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급격히 꺾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가며 중국 증시를 향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테크기업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보긴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기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만에 13% ↓...항셱테크 ETF 흔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KODEX 차이나항셱테크는 전날보다 5.44% 떨어진 1만1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14.48% 떨어졌을 정도로 하락폭



이 컸다. 다른 차이나항셱테크 상품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TIGER 차이나항셱테크(-14.34%), KBSTAR 차이나항셱테크(-14.40%), KINDEX 차이나항셱테크(-14.37%) 모두 5거래일간 14%대 급락세를 보였다. 이달 초만 해도 연초 이후 모두 25% 이상 수익률을 올리며 ETF 수익률 최상위권에 포진했던 상품이다. 모두 지난해 12월 16일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4개 운용사가 동시에 출시했다. 특히 KODEX와 TIGER의 경우 일 평균 거래량이 각각 70만주, 55만주에 달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

다. 중국 증시가 유동성 위축 우려로 변동폭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7일간 이어진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8일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총 2600억 위안(약 44조원)의 유동성을 회수했다. 이후 인민은행은 23일 100억위안 규모의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을 매입했다. 시장에선 중국당국이 본격적으로 부채 감축(디레버리지) 기조로 복귀하려는 것이라 관측이 나오며 긴축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4일 항셱테크지수는 5.10% 급락한 9360.95포인트로 마감했다. 홍콩

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춘절 연휴 이후 인민은행의 연속적인 유동성 흡수로 유동성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고,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공급량이 시장 예상보다 작다"고 분석했다.

◆중국 테크 기업 기대치 여전히
하지만 차이나항셱테크ETF는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로 꼽힌다.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기초지수가 혁신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술주들로 구성된 데다 이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이다. 추가 수준과 유동성 축소 이슈로 당분간 투자심리가 흔들리더라도 테크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라는 평가다.

실제로 항셱테크지수는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레노버, 샤오미, SMIC 등 지수에 담긴 중국 주요 테크 기업들의 규모와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반응이기도 하다. 중국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혁신기업으로 뽑히는 테크 기업에는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항셱테크지수는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5% 이상 혹은 연간 매출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시가총액이 큰 30개로 구성된다. 이를 추종하는 ETF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합하다는 평가다.

김정현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팀장은 "항셱테크ETF는 중국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연금자산 처럼 긴 호흡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주식시장은 경기 호조와 내부 대순환 정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IT, 소비재, 헬스케어, 등 내수와 신경제 업종 중심의 ETF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글로벌 ETF 시장 동향을 보면 중국 인터넷 섹터도 주가 상승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절세 효과도 장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해외 ETF는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 시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지연되고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2·4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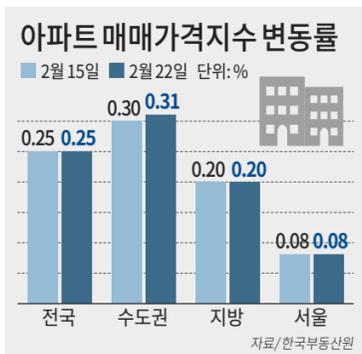
매매가 0.25%, 전세가 0.19% 상승
재건축 등 호재 강남권 상승폭 확대

아파트 거래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 22일 기준 2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25% 상승, 전세가격은 0.19% 상승했다. 서울은 0.08%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2·4 공급대책 발표 후, 강북권은 대체로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 유지 또는 축소, 강남권은 설 연휴 이후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개발호재 영향이 있는



마포구가 상암동 역세권과 재건축 위주로 0.11% 올랐다.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재건축과 신축 위주로 0.11% 올랐다. 0.10% 오른 강남구는 압구정동 재건축과 일원동 대형평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0.

10% 올랐다.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0.11% 올랐다.

전세가격도 0.19%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0.08%에서 0.07%로 상승폭이 줄었다. 물건부족 현상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방학 이사 수요가 마무리되고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는 평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길음·돈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3% 올랐으며 은평구는 녹번·진관동 일대 신축 위주로 0.11%,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역세권 중심으로 0.11% 올랐다. 강남구는 삼성·압구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5% 올랐으며 서초구는 반포·방배동 구축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며 0.05% 올랐다.

/장연우 기자

KB證, 美 주식 프리마켓 오후 6시로 확대

거래시간 기존대비 1시간 앞당겨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

KB증권이 25일부터 미국 주식 프리마켓(장전 거래) 거래 시간을 기존 대비 1시간 앞당긴 오후 6시부터 제공한다. 야간에 거래해야 하는 미국 주식의 불편함을 프리마켓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다.

미국 주식시장은 시간대별로 프리마켓(장전), 정규장, 애프터마켓(장마감후)으로 구분된다. 특히, 국내 주식 시장과 달리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도 동시호가 아닌 경쟁매매가 진행된다.

이번 프리마켓 거래시간 확대로 KB증권 고객은 기존 오후 7시부터 11시

30분이 아닌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총 5시간 30분의 프리마켓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KB증권에서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 50분까지 총 12시간 50분 동안 미국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흥구 KB증권 WM총괄본부장은 "미국 상장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프리마켓을 통해 변동성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래 시간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상품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 고객 만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

현장 도면 실시간 확인 플랫폼 개발

대우건설, 효율적 협업환경 조성
도면 공유 플랫폼 SAM 개발완료

대우건설이 비대면 시대에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업무 및 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면 기반의 정보공유·협업 플랫폼을 개발했다.

대우건설은 도면 공유 플랫폼 SAM(Site Camera)을 개발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SAM은 건설현장의 도면과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치 기반으로 현장의 도면, 문서, 사진을 연결시켜 만든 플랫폼이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현재 자신의 위치 주변 도면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현

장의 모든 도면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장 직원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사진 촬영, 메모, 녹음시 자동으로 해당 도면 위치에 정보가 저장된다. 또한, 도면 리비전(revision) 기능으로 항상 최신 도면을 유지하고, 도면에서 도상세 도면, 참고 도면 등의 하위도면이 연계돼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장소 제약 없이 확인할 수 있다.

SAM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웹페이지를 제공해 현장과 사무실에서 사용자가 모든 도면을 조회하고, 관련 사진, 메모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시공관리에도 도움



대우건설 SAM(Site Camera) 기술요청 화면 및 도면

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에 개발된 SAM을 공정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며, 3D 모델링 뷰어, 실시간 스트리밍 스트리밍 등의 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도 명확한 현장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장연우 기자 yw964@

'ISA 중개형' 뱅키스 고객 가입 이벤트

한국투자證, 내달 말까지 진행
에어팟·스타벅스쿠폰 등 제공

한국투자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 출시를 앞두고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예약·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다.

올해부터 절세형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의무 보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새로 출시되는 ISA 중개형은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가

가능해진다. 기존 혜택인 비교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과 초과분 9.9%의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달 2일 'ISA 중개형' 계좌의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월 1일까지 사전예약하고 한국투자 앱에서 뱅키스 ISA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가입이벤트 혜택과 별도로 스타벅스 커피쿠폰 1장을 추가 지급한다.

3월 말까지 진행되는 ISA 가입 이벤트는 ISA에 가입한 모든 뱅키스 고객에게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에어팟을 증정한다.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도 추가로 제공한다.

/송태화 기자

호사다마? 잘 나가는 K-배터리, 소송 등 난제 풀어야 '1등'

〈好事多魔·좋은 일에는 탈이 많음〉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화재 리콜 비용만 최대 1조원 전망
SK, 배터리戰 합의금 2.8조
삼성, 화재로 신뢰성 타격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부터 전기차 배터리 화재까지 연이어 악재를 맞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전부 주요 순위를 차지했다. SNE리서치가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78개국 전기차 판매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위에 올랐다.

또,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주요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 같은 K-배터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10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오창공장.



삼성SDI 기흥사업장.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제1공장.

(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3년째 이어져 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도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외려 당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신뢰성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 24일 현대자동차는 2018년 5월 이후

15건의 화재가 발생한 코나EV(전기차)와 함께 아이오닉, 전기버스 일렉시티에 대해 배터리 전량 교체를 단행기로 했다.

해당 리콜(시정조치) 대상 차량에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 중국 장쑤성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탑재됐다.

국토부는 LG에너지솔루션 난징공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의 셀 제조 불량(음극탭 접힘)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목했다. L

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셀이 연이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셀 제조 불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이 같은 악재들로 인해 자금적인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서 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조8000억원 수준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또, LG에너지솔루션도 현대차 코나EV의 전면 리콜 결정으로 책임 비중을 따져 최대 1조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삼성SDI도 당사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 불이 난 만큼 신뢰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삼성SDI 배터리가 탑재된 BMW의 PH 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포드의 쿠가 PHEV는 화재로 인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허창수 회장, 전경련 2년 더 이끈다

전경련 "민간 경제계 이끌 책임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이 임기를 이어간다.

전경련은 허회장을 제38대 회장으로 추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여러 기업인들과 재계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경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허창수 회장을 재추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련은 26일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은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 속에서 전경련을 잘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경련과 민간 경제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경총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야"

모호한 규정 손질, 가이드 마련 지원 사업비, 세제 혜택 등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촉구했다.

경총은 24일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해석과 적용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보완 입법 등 지원 방안 등 3가지 분야 94개 항목이다.

경총은 조사 결과 모든 조문에서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기업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모호한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법률해설서와 매뉴얼, 가이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보완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의 뜻도 전달 사항에 함께 포함했다. 1년 이상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하고, 사망자 범위를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하는 등이다. 또 시행 이후 예방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요구했다. 지원 사업과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다.

/김재웅 기자 juk@

미래 혁신인재 육성... 5년간 25兆 쏟는다

과기정통부 '과기인재 기본계획' AI 기반 수학학습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선도학교 2배 확대

정부가 초·중등생의 수학·과학 역량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학학습 지원시스템을 내년 구축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초·중등 학생의 디지털 기초소양 제고를 위해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지난해 247개에서 올해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별 AI교육 기준'도 올해 마련해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비

전으로,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과학기술 인재규모 지속 유지·확대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또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청년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의 틀과 1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초·중등 학교와 대학·연구기관·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협업 체계인 '스타브릿지 센터'(가칭)를 내년에 구축·운영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대비와 수학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수학인재양성연구센터'(가칭) 신설을 검토한다.

과학영재 교육 기회도 확대해 상반기 내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에 도입한다. 올해 KAIST 영재교육원 주도로 온라인 수·과학 심화강의를 개발해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공계 전공 관련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

해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연수 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한다.

청년 연구자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박사후연구원의 자유로운 실험실 이동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1년에 200여명, 1인당 연 1억 3000만원 내외에서 최대 5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이 과학기술인으로 활약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W-브릿지'(가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을 양성해 사회진출을 유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패러다임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 기본역량 확보가 긴요한 시점이고, 과학기술인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인재의 기초역량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LG AI 연구원, 세계 최고 학회서 첫 결실

'설명하는 AI', '연속학습' 설립 두 달 만에 논문 2편 발표

LG AI 연구원이 설립한지 2달여만에 성과를 냈다.

LG AI 연구원은 국제인공지능학회(AAAI)에 논문 2편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AAAI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다. 매년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로, 발표된 논문은 각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논문은 토론토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설명하는 AI'와 '연속학습'을 주제로 완성했다. 각각 인공지능이 결과를 도출한 과정을 설명해 주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미래 기술을 구현하



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아직 개척되지 않은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AI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설립된 후 처음으로 성과를 냈다. 이훈락 미국 미시건대 교수 등 인재를 영입하고 토론토대와 서울대 등 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조성하며 AI 원천기술 확보 및 난제 해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사진)은 "AI 기술 연구를 고도화해 고객들이 직접 기술 발달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젊은 AI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2023년까지 AI 전문가 1,000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개발, 계획, 시공
골드홈종합건설(주)

상가주택 | 다가구주택 | 원룸 | 타운하우스 | 업무용빌딩



골드홈종합건설(주)

www.goldhomes.co.kr

검색 골드홈

YouTube 골드홈TV

☎ 1800-7677

“기업밀착 지원, 규제환경 개선… 깨어있는 벤처 대변자”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취임

‘낮은자세, 열린마음’ 포부 전해
“대외환경 변화 부합할수 있어야
유연한 사고, 실행력 기반 능동대응”



벤처기업협회 전임 안건준 회장(왼쪽)과 신임 강삼권 회장이 25일 열린 이·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제10대 회장을 맡게 된 강삼권 포인트모바일 대표가 ‘벤처기업의 깨어있는 대변자’를 자처하며 신산업 영역과 규제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 대응해나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계 최고의 벤처생태계 조성 노력, 민간 벤처생태계 허브역할 수행, 창업문화 조성 및 기업가정신 확산 등도 약속했다.

‘낮은자세, 열린마음’으로 벤처업계를 위해 2년간 힘껏 뛰어보겠다고 취임 포부를 전하면서다.

벤처협회는 25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9대를 역임한 안건준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강삼권 신임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트렌드와 국내 경영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 벤처협회가 달라진 대외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협회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유연한 사고와 신속한 실행력으로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벤처기업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기업밀착형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임기 동안 벤처생태계의 회수시장 다양화, 우수 인재의 벤처 유입,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순부터 민간주도의 벤처확인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삼권 회장은 “벤처확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협회가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회원사들이 차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도 새로 만들고, 기존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회원사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 저변 창업 문화 조성 ▲대학과 연구원 창업 활성화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마련 등을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강 회장은 원광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2006년 산업용PDA를 제조하는 포인트모바일을 창업했다. 포인트모바일은 지난해 하반기 코스닥에도 입성

했다. 포인트모바일의 PDA는 전 세계 80여 개국으로 팔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벤처협회는 금성볼트공업 김선오 대표를 수석부회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협회의 수석부회장은 3명이다. 김 선오 대표는 1978년 사업을 시작해 현재 산업용·항공·방산·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조향장치의 볼트·너트, 펌프용 부스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5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협회는 ▲혁신 벤처생태계 선도 ▲벤처기업 역량강화 ▲창업문화 조성 및 사회적 인식제고 ▲회원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세부 전략과제로 설정하는 등 올해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도 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셜벤처와 모빌리티 분야의 신규 임원진을 영입해 선배 벤처와 후배 창업기업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 신산업분야의 이슈를 적극 대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독일·이스라엘서 기업 혁신기술 배운다

중견연, 2021 정기총회 열어
명예특별회원 2명 위촉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지난 2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을 명예특별회원으로 위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중견연

중견기업계가 하든철플의 나라 독일과 혁신 벤처 강국 이스라엘의 혁신기술 역량을 배우기 위해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4일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을 명예특별회원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2019년 타결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이스라엘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신사업·신기술 발굴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경제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 전략으로서 ‘하르츠 개혁’과 ‘어젠다 2010’을 강력하게 추진해 독일을 유럽연합(EU)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구축했다.

1993년 요즈마그룹을 출범시킨 에를리히 회장은 벤처캐피털 혁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계 1위 혁신 벤처 창업 국가로 이끈 핵심 인물이다.

코로나19로 위축식에 참석하지 못한 슈뢰더 전 총리와 에를리히 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경기전망 두달째 상승… 中소업체 봄 오나

중기중앙회, 3월 경기전망 조사
SBHI 76.2기록… 전월비 6.9p ↑
1월 중기수출 전년대비 18.4% 상승

3월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경기가 봄과 함께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2개월째 상승했고, 1월 수출도 대기업 등에 비해 크게 늘어나며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해 25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3월 업황전망경기전망지수(SBHI)는 7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65, 2월 69.3을 각각 거쳐 다시 6.9포인트(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올랐다.

그중에서도 제조업이 1월 75.3, 2월 76.6, 3월 86.3으로 회복세가 비제조업에 비해 빠른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월15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비수도권이 0.5단계씩 완화되고 영업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취해지면서 전산업 전체적으로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올 3월 SBHI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의 78.5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1월 중소기업 수출도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이날 펴낸 ‘KOSBI 중소기업 동향 2월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전년동기대비)은 지난해 10월 -2.5%에서 12월 12.1%, 12월 14%로 각각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들

어선 18.4%로 크게 늘며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같은 기간 0.1→11.4→10%를 각각 기록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더욱 높다.

특히 1월로 넘어오면서 대중국 수출이 33%로 크게 늘었고, 미국 수출도 13.3% 증가하며 눈에 띄었다.

중기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이 품목 다변화와 온라인 채널 확대 등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수출과 늘어나는 온라인쇼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청년, 여성과 숙박음식점업,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일경험 지원 확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고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한샘, 50년 욕실 노하우 ‘바스바흐’ 선보

한샘이 초고가 욕실 시장을 겨냥해 1000만~3000만원대로 구성한 ‘바스바흐(BATHBACH)’를 새로 선보였다.

부엌과 인테리어 가구, 리하우스 등 인테리어 전분야에 걸쳐 지난 50여년간 갖춰온 디자인과 상품 기획, 설계·시공력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욕실 분야에서도 세계 최정상급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25일 한샘에 따르면 ‘바스바흐(BATHBACH)’는 지난 2006년 출시한 부엌 가구 브랜드 ‘키친바흐(KITCHENBACH)’에 이은 자사의 두 번째 프리미엄

브랜드다. 프리미엄 부엌에 대한 노하우를 욕실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한샘은 국내외에서 엄선한 고급 자재와 한샘의 차별화된 3D 상담설계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욕실 공간을 제안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바스바흐’는 대형 이태리 수입 타일 등을 적용한 욕실 공간을 선보인다. 기존 한샘 욕실대비 시공이 까다롭지만 더욱 다양한 디자인의 타일로 고급스러운 욕실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인천 송도에 국내 1호 ‘스타트업 파크’

중기부, 이달 77개 기업 입주

혁신 창업과 글로벌 진출을 돕는 개방형 클러스터인 ‘스타트업 파크’가 국내 1호로 인천 송도에 처음 들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시와 함께 조성한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25일 오후 개소식을 갖고 스타트업 육성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 중국의 중관촌과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 창업공간으로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문을 열게 됐다. 이달 말까지 7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인스타I, 인스

타 II, 인스타 III의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인스타 I은 인천시가 인천테크노파크로, 인스타 II는 신한금융과 셀트리온이 각각 운영한다.

인스타 III는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로 리모델링해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는 사무실 60여개, 오픈공간 150여개, 회의실 40여개를 갖추고 있으며 지능형사물인터넷(AIoT) 실증지원랩, 다목적홀, 코칭룸과 수면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들어서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신약개발 등 바이오 분야 혁신기업 230여개 기업에 대한 실증지원사업, 대학연계 기술지원, 전문가 멘토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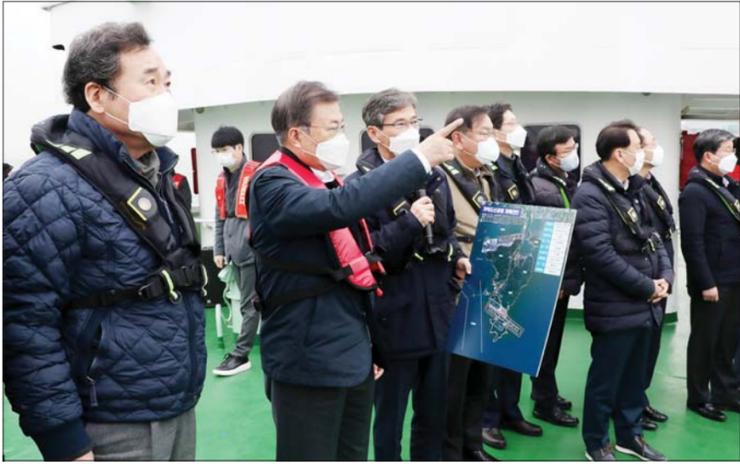
‘더현대 서울’ 매장 오픈

시몬스가 서울 여의도에서 26일 정식 오픈하는 ‘더현대 서울’에 매장을 새로 연다.

25일 시몬스에 따르면 ‘시몬스 더현대 서울점’은 지상 전 층이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8층 건물 가운데 4층에 꾸며졌다. 방문객들은 햇살이 비치는 개방감 있는 매장에서 시몬스 침대 매트리스와 베딩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매장이 들어선 영등포 상권은 일평균 유동인구만 15만 명에 이르는 데다 강서·마포·용산 등 1차 상권과 2·3차 상권인 경기·인천까지 상권이 광역화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소비자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동남권 메가시티 일정 文, 부산 뉴딜현장 방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 참석
"가덕도 공항, 세계 물류허브 될 것"**

**野 "4·7 보궐선거 40여일 남아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 나서"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4·7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이 지역 균형 뉴딜 현장 일정에 나선 데 대해 야당은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진행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일정을 소화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단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이 핵심인 사업이다.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 공동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들 지역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에 필요한 4대 전략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도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이 한국판 뉴딜, 지역 뉴딜 균형 구상과 일치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날 일정에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광역지자체장과 함께 흥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

산부·전해철 행정안전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당 K-뉴딜위원회 본부장도 함께 참석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차질 없는 이행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 부전역을 찾은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골자인 '동남권 특별연합(생활·행정 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송 시장 보고에 문 대통령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및 생활·행정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관련 청와대는 "작년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 번째 현장 행보에 해당하며,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서는 두 번째 행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아예 노골적인 선거 행보"라며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맘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수소차 안전교육,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

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 아니라 대리운전자,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됐다.

최근에는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차량 안전성이 향상됐고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차 가운데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앞으로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수소차 안전 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 교육과 같은 수준은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유통업체 매출 6.1% ↑ 온라인서 23% 급증

**산업부, 1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가전·문화 38%, 해외브랜드 22%
오프라인 업체 매출은 5.8%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접 매장에 가는 대신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며 온라인 부문은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약 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가전·문화(37.5%) ▲해외 유명 브랜드(21.9%) ▲생활·가정(9.8%) 순으로 매출이 늘었다. 반면 ▲패션·잡화(-13.5%) ▲서비스·기타(-7.3%)는 매출이 줄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매출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은 매출이 22.6% 상승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5.8% 줄었다. 구매 건수는 14.8% 하락했고 매출액을 구매 건수로 나눈 구매단가는 10.6% 올랐다.

매장 방문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최근 소비 흐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매장 영업시간 제한, 한파 등에 따른 외부 활동 제약과 지난해와 비교해 늦춰진 설 연휴 시기 등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마트 매출이 11.7% 큰 폭 줄었다. 백화점과 준대규모점포(SSM) 매출도 각각 6.3%, 3.3% 감소했다. 반대로 소비자 인접성이 좋은 편의점 매출은 2.4% 늘었다.

대형마트는 ▲잡화(-42.0%) ▲의류(-29.3%) ▲가정·생활(-26.6%) 품목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백화점은 ▲잡화(-31.8%) ▲여성

캐주얼(-30.5%) 등 패션 부문 매출이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가정용품(41.4%), 해외 유명 브랜드(21.9%)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

편의점은 잡화(-18.2%)와 생활용품(-14.8%) 판매는 줄었지만 간편식 선호 경향으로 음료 등 가공식품(7.4%) 부문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22.6% 확대됐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가공식품 등 선물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식품군이 전체 온라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5%를 기록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전·전자(43.3%) ▲생활·가구(22.1%) 등의 매출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공연·여행 등 서비스·기타(-14.2%), 패션·의류(-0.1%) 부문 매출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자제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현진 기자 hnj@

"투기억제" vs "감시 부작용" 부동산거래분석원 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종인 "투기억제 도움안돼
종전과 다른 모습 제시하는 게 현명"

더민주 진성준 "신고가 조작 등 감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시장의 감시·감독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시장 감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한 야당이 대립 중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그런 감시로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김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24, 25번째(대책을) 발표했는데 한번도 성과를 못 거뒀다. 처음 한두 번 투기 대책을 발표했으면 무엇 때문에

실효가 없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롭게 만드는 모습은 안 보이고, 하다 하다 안 되니 억지로 부동산 감시청을 만들어 투기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같이 감시 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발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종전과 다른 모습을 제시하는 게 현명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 골자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진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신고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법이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분석원이 확인하는) 부동산 의심 거래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매매 건수 가운데 2% 정도 된다. (또) 위법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과도한 정보 제공은 할 수가 없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은 "부동산 거래 기준이 모호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최영훈 기자

한·중미 FTA '북·남미 네트워크' 완성

산업부, 내달 1일 파나마와 FTA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 절차를 마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이 FTA는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미주 국가와 6번

째로 체결한 협정이다. 이번 전체 발표에 따라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

한국과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개방을 했다.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 품목에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꼽힌다.

특히, 대 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 음료 품목에 대한 관세(10%)가 즉시 철폐하기로 해 시장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 측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파나마 운하 이용 상위국 가라는 점에서 이곳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 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현진 기자

AR 초대장에 'AI 총장' 등장... 대학가, 비대면 입학식 혁신

첨단 기술 활용해 이색 입학식
Zoom·유튜브 통해 온라인 진행
성균관대, 'AI 총장' 나타나 눈길
동국대, 학생 3000명과 댓글 소통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이 온라인 입학식을 여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일방적인 온라인 영상 게시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증강현실(AR) 등 최첨단 기술을 총출동해 이색 입학식 꾸리고 있다. 성균관대는 입학식에 AI총장이 등장해 '진짜' 신동렬 총장과 마주하는 모습을 그려 대학가 주목을 받았다. /성균관대 제공 동영상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속에서 새 학기를 맞은 전국 대학이 온라인 입학식을 통해 신입생을 맞고 있다. 지난해는 사상 초유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입학식을 취소했지만, 올해는 대학 역사상 처음 비대면 입학식이 마련됐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일방적인 온라인 영상 게시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증강현실(AR) 등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이색 입학식을 꾸렸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하면서 대학들은 유튜브나 줌 등을 활용해 기존 입학식 행사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 23일 2021학년도 입

학식과 신입생 환영회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했다. 줌과 유튜브, AR 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이면서도 마치 한 자리에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과 같은 현장을 구현했다. 이를 위해 숙명여대는 학교 마스크트

숙명여대 관계자는 “2021 버추얼 라이브 페스티벌”로 명명해 마련된 입학식은 줌(Zoom)과 유튜브, 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이면서도 마치 한 자리에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과 같은 현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도 입학식에 AI 총장이 등장해 대학가 주목을 받았다. 대학에서 AI 총장을 선보인 것은 처음이다.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입학식에서 AI 총장이 신동렬 총장을 대신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첫 수업’(총장 훈사)을 진행한 것. 학생들이 AI 총장을 신동렬 총장이라고 생각하며 훈사를 듣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진짜 신동렬 총장이 나타났다. 신동렬 총장이 축사를 하려고 하자 AI 총장이 “이미 축사를 내 가다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신동렬 총장은 취임 이후 “AI의 활용 여부가 모든 학문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학생들이 AI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대학이 노력해

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왔으며, 이날 입학식에서 AI총장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그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셈이다. 동국대는 ‘줌’과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입학식을 개최했다. 사전 신청한 1000여 명의 학생 중 100명의 학생이 줌을 통해 무대 위 대형스크린에서 화상으로 대면하고, 3000여 명의 학생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누구나 평생 한 번 뿐인, 소중한 입학식인데 올해 입학식은 우리 대학 최초로, 이렇게 비대면 원격화상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했지만, 이 또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문화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울산대도 24일부터 26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입학 환영사를 비롯해 오리엔테이션 안내 등 대학 생활을 안내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신입생을 맞이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내달 서울에 유·초·중 22개교 신설된다

병설 16곳 등 유치원 19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강빛초·강빛중 '이음학교' 운영

오는 3월부터 서울 내 유치원 19교와 초등학교 1교, 중학교 2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총 22개교가 신설되고 25일 밝혔다. 신설되는 유치원은 총 19개원이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는 매입형유치원 1개원, 단설유치원분원 1개원,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16개원이다. 매입형유치원인 솔방울유치원(송파구 오곡로)은 2019년 공모·선정을 거쳐 유아 모집을 완료하고 2021년 3월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 신설된다. 이번 신설되는 솔방울유치원을 포함해 매입형

유치원은 총 15개원이다. 성북구 송인로에 위치한 좋은소리유치원분원은 지난해 3월 솔가람유치원분원(송파구 위례순환로) 이후 두 번째로 설립되는 분원으로, 유치원 부지(677.2㎡)와 건물(541.4㎡) 약 36억원 상당을 민간 재개발조합에서 기부채납받아 설립하는 첫 '민간협력형'유치원이다. 분원은 소규모 시설에서도 효율적인 영이 가능한 서울형 중·소규모 단설유치원 모델이다. 그 외 우이초등학교(강북구 삼양로) 여유부지 내 단설유치원 1개원(우이유치원)과 봉화초등학교 등에 병설유치원 16개원을 신설한다. 유치원과 함께 신학기 신설 개교하는 초·중학교는 3개교로,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두 곳이다. 강동구 고덕강일개발지역에 강빛초

등학교 강빛중학교, 영등포구 신길재개발지역에 신길중학교가 들어선다. 특히, 강빛초등학교와 강빛중학교는 초·중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로 운영된다. 이음학교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공식 명칭으로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동일부지 또는 인접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형태다. 또한, 강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함께 개원에 유·초·중을 아우르는 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는 해누리초·중(송파구 송파대로)과 서울체육중·고(송파구 강동대로)가 이음학교로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개교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필수요원을 조기 검임 발령 조치했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가 23일 '학생상담센터 이전 및 인권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한신대, 학생상담·인권 위한 센터 개소

단독 공간으로 마련
한신대가 학생상담과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된 상담 공간을 마련했다. 한신대학교는 지난 23일 중앙도서관에서 '학생상담센터 이전 및 인권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공간은 학생복지처 학생상담센터가 주관하고, 이미옥 교수가 인테리어 디자인 재능기부를 해 꾸려졌다. 연구홍 한신대 총장은 “대학의 큰 기능은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다. 학생

상담센터와 인권센터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게 도와줄 것”이라며 “한신대는 지식, 기술, 정보만이 아닌 ‘나를 찾게 해 주는 대학’으로 발전하겠다”고 전했다. 센터장인 김동심 교수는 “학생상담센터가 단독 공간을 갖게 돼 앞으로 학생들은 전문 상담 선생님에게 힘든 점과 고민을 편히 터놓을 수 있게 됐다”며 “인권센터가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대학생 “원격수업이니 등록금 감면해야”

새학기 비대면 수업 97% 달해
257만원 희망, 실제 납부 402만원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수업으로 새학기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이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올해 1학기 등록금 평균 납부금액인 402만원에서 36% 감면한 257만원 정도를 적정 등록금이라고 말했다. 인크루트가 25일 새학기 비대면 개강에 따른 등록금 실태를 주제로 한 조사 결과, 새학기 비대면 수업이 예정됐다고 답한 비율은 97.1%에 달했다. 전면비대면이 55.1%, 대면과 비대면 혼용이 42.0%로 구분된다. 대면수업은 2.9%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들의 새학기 총 수강 학

점은 평균 14.4점, 그 중 비대면 과목 수강 학점은 11.6점으로 원격수업이 전체 개설학점의 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에 직접 출석하는 일수 역시 주 1.4일에 그쳤다. 반면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안가는 일수는 주 4.1일로 3배가량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금에 대한 불만 역시 새어나왔다. 새학기 등록금 조정에 대해 의견을 묻은 결과 ‘코로나 이전(2019년) 수준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92.6%로 압도적이었다. 많은 대학이 올해 1학기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대학생들은 코로나 이전 보다 더욱 낮아지길 원하고 있는 셈이다. 전공별로는 인문(97.4%), 자연과학(97.1%), 공학

(94.9%) 계열 순으로 감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주관식으로 확인한 결과 응답자들이 새학기 납부한 등록금은 평균 402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실제 희망하는 등록금은 257만원으로 납부금 대비 약 36% 가량의 감감을 바라고 있었다. 끝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여론은 ▲공·부정 혼합(11.1%) ▲공정(33.1%) ▲부정(55.8%)으로 나뉘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등록금이 아까움(16.8%) ▲수업 집중력 저하(16.2%) ▲온라인 강의 질 저하(13.9%) ▲실습이 불가한 점(9.6%) 등이었다. 반면 ▲등하교에 소용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약(25.8%) ▲공간 제약 없이 수강 가능(20.5%) ▲온라인 예·복습 수월(15.4%) 등은 긍정요인으로 꼽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총 614명이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성신여대,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 전시회'

내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은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0학년도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전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과전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대학과 학생이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성과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성신여대 교육혁신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린다. 주로 2020학년도에

운영한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성과, 우수사례, 학생 성과와 함께 기초 분석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성신여대 강태훈 교육혁신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단과대학, 학과, 행정부서에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신여대 교육혁신원 비교과통합관리팀에서는 성신 6대 핵심역량을 고르게 함양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ECONOVA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이주열 총재 'G20회의' 참석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이주열 총재(사진)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화상회의'에 참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후 8시 반(한국시각)부터 화상으로 열린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 전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정책공조 방안, 금융부문 이슈 등 주요 안건에 관해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및 국제금융기구 고위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국발명진흥회

신임 회장에 권오현 삼성 고문



한국발명진흥회가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25일 서울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19대 권오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발명진흥회는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회장직을 역임했다. /김승호 기자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다이어트는 365일 풀지 못하는 숙제'라는 말이 있듯 올해도 새해 목표표 다이어트를 계획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거창했던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다이어트를 실천 중이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 그 이유는 무조건 식사량만 줄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충분한 숙면, 꾸준한 운동,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관리 등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모든 규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복되는 요요현상으로 매년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면 장(腸)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장 속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많으면 살이 잘 안 빠지는 것은 물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장 속에는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유익균과 해로운 작용을 하는 유해균이 함께 공존한다. 장 속 세균을 모두 합치면 약 1~1.5kg가량 되는데, 이 세균들은 장으로 유입된 음식을 분해하거나 영양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도록 돕고, 젖산균이 젖산을 생성해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한다.

이때 유해균의 수가 유익균의 수보다 많아지면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면서 체내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해균 가운데 '괴르미쿠트나 엔테로박테리'는 섭취한 칼로리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특성이 있어 그 수가 많아지면 비만이 될 확률도 높다.

따라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다이어트도 성공하려면 평소 식이섬유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좋고, 고도비만이나 내장비만, 복부비만, 지방간 등의 증세가 있다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장해독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장해독 치료는 세계적인 대체의학인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한 치료방법으로 장내에 축적된 유해균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 유익균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장해독 치료를 시행할 때 디톡스 효과를 높이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

충하기 위해 한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쓰고 복용하기 어려운 탕약 대신 효과는 유지하면서 복용이 간편하고 맛이 좋은 짜 먹는 형태의 연조엑스제로도 처방이 가능하다.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장내세균분석(GMA)' 검사를 통해 장내에 존재하는 균의 비율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GMA 검사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장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세균들의 비율을 분석하고, 어떠한 균이 많은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분석하는 검사다. 아울러 사람마다 앓고 있는 질환이나 체질이 모두 다른 만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취약계층에 8억 상당 홍삼제품 기부

KGC인삼공사, 건강증진 도모

KGC인삼공사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억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정관장에서 연간 추진하는 '함께하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 물품은 정관장 대표제품인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골드, 화애락진 등으로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KGC인삼공사는 매년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홍삼 제품

을 기부해왔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해마다 10억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지원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의 의료진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홍삼 제품을 기부했다.

KGC인삼공사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정관장 펀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야아부탁해' 캠페인을 통한 아프리카 지역 식수 후원 사업과 지역 이웃을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정관장 사회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4일 정관장 홍삼제품 기부식에서 김호경 KGC인삼공사 대외협력실장(왼쪽)과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풀무원생물 '무라벨' 전환

환경부와 투명페트병 사용 MOU 무라벨 설비 갖추고 순차적 적용

풀무원생물이 올 상반기부터 자사 제품을 무라벨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풀무원은 지난 2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환경부와 라벨 없는 투명 페트병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해당 협약식에는 풀무원생물을 비롯해 총 10개의 국내 주요 먹

는생물 제조·판매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풀무원생물은 무라벨 제품 출시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제품에 라벨 없는 투명 페트병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을 제도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화두로 부상하면서, 유통업계 역시 탄소 제로를 향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라벨 제거 시 브랜드 식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다르게 무라벨 페트병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가 되었다. 특히,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



풀무원생물 조현근 대표(왼쪽)와 환경부 환경부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생물

화되면서 라벨 없는 제품이 더욱 소비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풀무원생물은 지속 가능 경영을 주요 과제로 삼고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환경부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환경부 주관 '2020 자원순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환경부 '탈 플라스틱 GO! GO! 챌린지'에 참여해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다짐하고, 소비자들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 SNS에서 브랜드 캐릭터인 풀샘이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권광석 우리은행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권광석 우리은행장(가운데)은 지난 24일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직원들과 함께 교통안전 슬로건을 들고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더불어 권 행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우리은행 대표 고객인 홍흥식 금전기업 회장,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 강성희 오택그룹 회장을 지명했다. /우리은행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심승일 회장 '연임' 결정



심승일 삼정가스공업 대표(사진)가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자리를 연이어 맡게 됐다. 고압가스조합연합회는 25일 제19차 정기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심승일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심 회장은 연합회장 재임기간 중 고압가스업계의 당면과제인 '가스안전과 수급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승호 기자 bada@



동아씨오홀딩스, 상주보육원에 후원금 전달

동아씨오홀딩스는 지난 24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보육원에서 '가마솥 마음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동아제약 박정우 상무, 상주보육원 한영식 원장, 상주고등학교 정창배 교장(오른쪽부터)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씨오홀딩스

인사

- ◆병무청 ◇과장급 전보 ◇경남지방병무청장 김용진 ◇경인지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최구기 ◇병무민원상담소장 박희철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김민환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윤주봉 ◇과장급 승진 △제주지방병무청장 문경중
- ◆생명보험협회 (승진) ◇부서장 △자율규제부장 이용준 △홍보실장 김경래 ◇팀장 △미래전략부 미래전략팀장 이성찬 △미래전략부 조사연구팀장 김우열 △사회공헌실 사회공헌팀장 차혜란 △보험심사부 보험심사팀장 이동명 (전보) ◇부서장 △기획부장 유제삼 △미래전략부장 천승

- 환 △사회공헌실장 장승록 △리스크관리부장 조성준 △채널혁신부장 박순근 △경영지원부장 모진영 △소비자보호실장 김윤창 △보험심사부장 최준원 △감사실장 최성림 △수도권본부장 조일원 △호남본부장 채한기 ◇팀장 △기획부 기획&ESG팀장 양재섭 △리스크관리부 상품공시팀장 홍양희 △채널혁신부 채널혁신팀장 이주학 △경영지원부 HR팀장 김치국 △소비자보호실 소비자보호팀장 민병현 △홍보실 홍보팀장 류종석 △자유규제부 광고심 의팀장 권성오 △대구지부 지부장 최재춘 △원주지부 지부장 홍성환
- ◆은행연합회 ◇부서장 △은행전략부장 지순구(현 감사실장) △여신금융부장 여인

- 채(현 여신제도부장) △디지털혁신부장 김수연(현 소비자보호부장) △자금시장부장 김경민(현 자금시장부장) △지속가능경영부장 유문선(현 수신제도부장) △소비자보호부장박진향(현 소비자보호부 차석부장) △범무지원부장 이인균(현 기획조사부장) △IT 부장 강동성(현 IT 부장) △총무부장 정영실(현 총무부장) △홍보실장 박영상(현 홍보실장) △감사실장 이상현(현 은행경영지원부장) △비서실장 박진우(현 비서실장)

부음

- ▲신완순씨 별세, 김성기(전 국민일보 대

- 표이사 겸 발행인, 투데이코리아 부회장)·정란(전 서울신학대 교수)·정아(사랑하는교회 목사)·정라(슬베이코리아 차장) 모친상, 임진목·조종만·장현규(SBS 자산관리이사) 빙모상 = 25일, 서울 광장동 해민병원, 발인 27일 오전 5시30분. 02-444-1552
- ▲김선산씨 별세, 김명진 김삼범(서울교통공사 종합상황실)·김승범·김재범(뉴스토마토 대중문화전문기자)씨 부친상, 김은정(약사순해보험)·류승연(한겨레21칼럼니스트)씨 시부상, 최준씨 빙부상, 김영자씨 배우자상 = 24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6일, 장지 유일추모공원. 02-2030-4463-4463

“새학기 강자는 나” 유통업계, 패션용품 프로모션 확대

보리보리 신학기용품 기획전 진행
ABC마트 신발 구매시 10%할인
쿠팡 가방·실내화 등 57% 할인



'NEW START 새 출발' 행사 /ABC마트



쿠팡 '신학기 프로모션' /쿠팡

유통업계가 새학기를 맞아 패션용품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 새학기 선물로 디지털 기기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신발과 가방 등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기획전과 할인 쿠폰 발행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새내기 사로잡기에 나섰다.

25일 옥션에 따르면 방문고객 1626명을 대상으로 새학기 선물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번에 새학기 선물을 하는 사람 3명 중 1명은 디지털기기를 고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발 및 가방은 응답자의 26%로 2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신발·가방(32%)이 인기 선물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노트북·PC·태블릿 등 지난해 2위를 차지한 IT 기기에 1위 자리를 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유통가는 3월 중 학생 패션용품 관련 기획전 및 할인 쿠폰 증정, 배송 서비스 등을 활발하게 유치하

고 있다. 트라이씨클의 유아동 전문몰 보리보리는 월간 디지털 2월호를 발간하고 신학기 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25일 밝혔다. 월간 디지털은 디자이너와 인서트의 줄임말로, 디자이너들이 선별한 '잇 아이템'을 재밌고 특별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콘텐츠다. 이번 2월호에서 보리보리는 아이의 성향으로 알아보는 가방 테스트와 스타일링 예시를 통해 브랜드·디자인·기능별 책가방을 제안한다. 또한 선호 색상과 따른 추천 상품, 가방과 어울리는 신발 등 학교 준비에 설렘을 더할 다양한 아이템을 선

정했다. 디지털 2월호에서 엄선한 신학기 용품은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백 투 스쿨: 신학기 가방의 모든 것' 기획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헤지스키즈, 닥스리틀, 내셔널지오그래픽, 바비 키즈, 빅토리안프렌즈 등 11개 인기 브랜드에서 책가방을 5~20% 할인해 판매한다.

ABC마트는 3월 신학기 등교와 새봄을 앞두고 '뉴 스타트 새 출발'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ABC마트 매장과 온라인몰 아트닷컴에서 신상품 신발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발을 구매할 경우 의류, 가방, 슬라이드 등을 10% 저렴한 가격으

로 구입할 수 있다. ABC마트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인기 스니커즈, 신학기 가방 및 학생들의 기본 아이템인 맨투맨, 후드 티셔츠, 자켓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선보이며 신학과 새출발을 앞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

등교 준비 아이템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고객이 ABC마트 '아트배송'을 이용하면, 수도권 지역에 한해 오후 1시 이전 주문 시 당일예 제품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인 편의점 픽업 서비스와 '매장 픽업 서비스'로도 제품 주문이 가능하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원하는 제품을 주문한 후 매장에서 직접 픽업할 수 있다.

쿠팡은 '신학기 프로모션'을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 상황별·연령별 맞춤 새학기 상품들을 최대 57%할인하며 '졸업·입학 축하 선물' 카테고리도 별도로 운영한다. 책가방, 신발주머니, 유치원 실내화, 등원 패션 등을 특가상품으로 마련했으며 1만원 가량의 추가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식물 기반 푸드 4종 /스타벅스

스타벅스 식물 기반 푸드 4종 첫선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계란과 우유, 버터 없이 식물성 원재료로 맛을 낸 4종을 25일 출시했다. 해당 제품으로 '진한 초콜릿 퍼지 케이크' '리얼 감자 베이글' '멕시코 리스 브리또' '스윗 칠리 올리브 치아바타' 등이 있다.

최근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식물 기반 식품에 대한 고객들의 소비 성향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주요 트렌드로 꼽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의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 중 하나인 탄소배출 저감 계획에 발맞춰 아시아태평양 여러 국가에서 식물 기반 푸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진한 초콜릿 퍼지 케이크'에는 다크 초콜릿과 두유를 활용한 진한 맛의 가나슈가 들었으며, '리얼 감자 베이글'은 유기농 밀가루와 유기농 설탕, 국내산 감자로 만들어 고소함을 살렸다. '멕시코 리스 브리또'는 식물 기반 단백질을 넣어 풍부한 감칠맛을 갖춘 든든한 식사 대용 푸드로 개발됐으며, '스윗 칠리 올리브 치아바타'는 두부 크럼블을 넣어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냉동피자 기준 바꾸는 '고메'... 두달만에 100만판 판매

CJ제일제당 냉동피자 시장 변화 주도
도우·소스·토팅·치즈 차별화



고메 프리미엄 피자 3종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의 '고메 프리미엄 피자'가 외식 전문점과 배달 피자 수준의 차별화된 메뉴와 맛 품질로 냉동피자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고메 프리미엄 피자'가 출시 두 달 만에 100만개가 팔렸다고 25일 밝혔다. '고메 프리미엄 피자'는 CJ제일제당이 '맛있는 피자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겠다'는 모토 하에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품이다.

디지털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 철저한 소비자 조사를 통해 딱딱한 도우, 부실한 토팅, 식상한 메뉴 등 냉동 피자 관련 소비자 불만과 요구를 반영해 개발했다. 선진 제조기술을 보유

한 미국 슈완스사와의 교류를 통해 도우 배합과 공정 최적화 관련 자문도 받았다.

'고메 프리미엄 피자'는 피자에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인 도우, 소스, 토팅, 치즈를 혁신적으로 차별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CJ제일제당 발효기술 기반의 '3단 발효 숙성' 기술

을 적용해 일명 부드럽고 쫄깃한 '숨쉬는 도우'를 완성했다. 또 가공된 치즈가 아닌 통치즈를 바로 갈아 토팅으로 얹어 치즈의 풍미와 탄력성, 색감을 향상시켰다.

셰프가 자신만의 비법 소스에 신선한 원료를 넣어 만드는 방식을 공정에 접목해 소스 풍미도 더욱 끌어올렸다. 원형 모짜렐라, 토마토, 호박씨, 크랜베리 등 원물감 있는 토팅으로 풍성함 역시 한층 살렸다. 피자 종류는 두툽한 팬피자가 아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얇은 '씬(thin) 피자'로 내놓았다. 최신 외식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고메 바르셀로나 칠리감바스 피자' 등 기존 냉동피자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메뉴도 차별화했다.

이는 피자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

어넣는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다. 국내 냉동피자 시장은 낄스 코리아 기준으로 2017년 835억원, 2018년 943억원으로 성장하다가 2019년 676억원 규모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업체들의 제조 경험과 기술력 부족으로 외식 대비 떨어지는 맛 품질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집콕족' 증가로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 920억원 규모로 반등했다. 이 같은 추세는 지속돼 올해 냉동피자 시장은 11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은 '고메 피자=맛있는 피자'라는 인식 확대에 주력해, 올해 매출을 지난해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시장 활성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조영제 롯데쇼핑 e커머스 사업부장 사임

롯데 외부 전문가 영입 예정



롯데의 온라인사업을 총괄해온 조영제(사진)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장(전무)이 건강 악화와 사업부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25일 롯데지주는 "조영제 사업부장은 통합 온라인몰 '롯데ON' 등의 사업을 이끌어왔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으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롯데ON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영제 사업부장은 건강이 악화되는 등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회사에 밝힌 바 있다.

1966년생인 조 부장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1990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했다. 마케팅1팀장, 지방기획팀장, 분당점장, EC담당임원 및 기획부문장, 롯데지주경영전략2팀장을 지냈다. 지난 2020년 1월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롯데ON 사업을 총괄해 왔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는 조직 분위기를 쇠신하고 롯데ON을 정상화 궤도로 올릴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곧 영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오뚜기, HMR 편의점 할인 폭 축소

"할인 조정일뿐 가격 상승 아니야"

오뚜기가 컵밥, 상온죽, 마요네즈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소비자 가격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적용하던 편의점 할인 폭을 줄임에 따라 사실상 소비자 구매 가격이 오르는 구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오는 3월부터 '오뚜기 마요네즈(300g)' 가격을 2900원에서 3800원으로 31% 올린다.

가정간편식(HMR)종류인 '오뚜기 컵밥' 7종 가격도 28.5% 올린다. 김치 참치덮밥·제육덮밥 등 가격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1000원 더 지불해야 한다.

오뚜기 영양닭죽·단호박죽(285g) 등 상품 4종 가격은 3200원에서 3900원으로 21.8% 오른다. 오뚜기는 '오뚜기 쇠고기미역국밥' 값도 3500원에서 3900원으로 11.4% 조정된다.

통조림 가격도 오른다. '오뚜기 백도·황도(400g)' 가격은 2800원에서 3500원으로 25% 인상된다. '오뚜기 마일드참치(200g)'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비싸진다.

오뚜기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이뤄지던 할인 폭을 조정해 줄이는 것이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할인 가격이 줄어 돈을 더 지불하다 보니 인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효정 기자



초코파이情·다이제 '딸기블라썸' 2종 /오리온

오리온 봄 한정판 제과 2종 출시

오리온은 2021 봄 한정판 '초코파이情(정) 딸기블라썸' '다이제 딸기블라썸' 2종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초코파이情 딸기블라썸은 지난해 완판을 기록한 봄 한정판 '핑크색 초코파이'를 업그레이드한 제품. 마시멜로 속에 들어가는 딸기와 라즈베리, 크랜베리로 만든 트리플 베리 필링을 기존 대비 두 배 넣어 상큼달콤한 맛을 극대화했다. 은은한 딸기 빛깔의 화이트 초콜릿으로 겉을 감싸고 그 위에 딸기과우더를 뿌려 맛과 향도 배가했다.

다이제 딸기블라썸은 1983년 다이제 출시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핑크빛 다이제'로, 고소한 통밀 비스킷 위에 바른 부드러운 딸기 스프레드의 조화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봄을 연상케 하는 화사한 핑크빛에 꽃, 과일 등 여심을 사로잡는 디자인 요소로 주목도를 높였다.

/조효정 기자

셀트리온 유럽 진출 초읽기... '렉키로나' 허가절차 본격화

긴급사용승인 허가 위한 순차심사 의약품 데이터·문서 우선 검토 연 최대 300만명 분 추가 생산계획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된다.

셀트리온은 25일 유럽의약품청(EMA)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의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위한 '롤링 리뷰(순차 심사)'에 착수해 유럽 내 품목 허가를 위한 공식 검토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EMA의 롤링 리뷰란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에서 랜데믹

등 위기상황 시 유망한 치료제 또는 백신의 평가를 가속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최종 허가 신청 전 실시간으로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데이터와 문서 등을 회사로부터 제출 받고 이를 신속히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다.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의 글로벌 신속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미 품질 및 제조 공정 관리, 비임상 시험 및 임상 시험 데이터를 EMA에 제출했으며, CHMP는 셀트리온이 제출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렉키로나의 효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렉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2상 종료 후 유럽 EMA를 비롯해 미국 식품의약품(FDA) 등 세계 주요 국가 규제기관들과 신속 승인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EMA와 롤링 리뷰 착수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가져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은 최

근 기자간담회에서 "FDA, EMA와 지속적으로 이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신속 허가와 관련한 비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전 심사 단계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신속 승인 절차 완료 후 즉시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물량 확보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미 10만명 분의 생산을 완료했으며, 즉각적인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에 따라 연간 150만~300만명 분의 렉키로나를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변이 대응 플랫폼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영국 및 남아공 변이에 중화능력을 보인 32번 후

보항체와 렉키로나를 조합한 콤비 치 료제 개발에도 착수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세계 10여 개국 약 1200명의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환자군을 통해 렉키로나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EMA의 롤링 리뷰 착수를 통해 유럽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가 본격화됐다"며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과도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국 규제기관이 요청하는 각종 데이터와 서류를 차질없이 제출해 렉키로나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우리들제약, 서울대 연구원과 신약 연구계약

AI 활용 바이오 신약 개발 공동연구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 수집 분석



우리들제약과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관계자들이 24일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 신약개발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리들제약과 서울대학교 생명공학 공동연구원은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 신약개발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들제약과 서울대 생명공학공동 연구원은 이날 계약에 따라 두가지 연구과제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 과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환 치료제 개발'과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활용한 질환치료 타겟 예측 시스템 개발'이다.

해당 과제는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이 보유한 AI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한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당뇨, 치매 등과 같은 난치성질환, 다빈도질환을 겪는 환자의 다

양한 의료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문헌고찰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은 바이오 융합기술을 활용한 산업체·대학·병원·연구소 간 협력 공동체로, 호

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정밀의료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바이오 신약 개발 및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MS, 코로나 진단키트 유럽 진출

루마니아 기업과 수출 계약

GC녹십자엠에스가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유럽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는 최근 루마니아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MCM EVA SRL사와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서 확정된 물량인 61억원의 진단키트는 오는 3월초 선적 예정이며 향후 MCM EVA SRL 측과 루마니아 현지 민간 및 공공 프로젝트 등에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여 2021년 9월까지

공급 물량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수출되는 제품은 GC녹십자엠에스가 작년 11월 출시한 '제네디아 W COVID-19 Ag'로, 항원-항체 결합 반응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현장에서 10분 안에 진단하는 신속항원진단키트이다. 별도의 진단장비 없이 코로나19 초기 환자의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현재 신속항원진단키트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 등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유럽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세경 기자

질바이질스튜어트 디즈니 '덤보'와 컬래버 성사

LF, 봄여름 시즌 협업 라인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 미니마우스와의 이색 협업으로 눈길을 끈 '질바이질스튜어트(JILL BY JILLSTUART)'가 이번 시즌에는 덤보와 만났다.

LF의 질바이질스튜어트가 2021년 봄여름 시즌을 맞아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기 코끼리 덤보'의 캐릭터를 활용한 협업 라인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덤보는 올해로 탄생 80주년을 맞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아기 코끼리 덤보' 속 주인공으로 오랜 시간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캐릭터다. 질바이질스튜어트는 귀가 큰 아기 코끼리로 주위의 편견을 극복하고 스스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운 덤보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기획했다.

덤보 컬래버 라인인 가방, 스웨트셔츠, 카드홀더, 동전지갑, 무선 이어폰 케이스, 열쇠고리 등 액세서리와 의류를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됐다. 민트, 라벤더, 베이지 등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의 파스텔 색상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제품은 유행하는 복조리 모양에 덤보 그래픽을 입힌 '모모백'이다. 캔버스 원단을 사용해 캐주얼한 매력을 살렸으며, 브랜드 로고를 자수로 표현해 포인트를 줬다. 가볍고 수납성이 우수한 아이টে็ม으로 솔더백과 크로스백으로 활용 가능해 실용적이다. 미니멀 시대에 필수 아이টে็ม으로 부상한 카드홀더와 동전지갑은 탄탄한 가죽 소재가 사용돼 내구성이 우수하다. 덤보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을 지퍼 고리에 적용, 재미 요소를 더했다. 가격은 모모백이 7만원대, 스웨트셔츠가 11만원대, 카드홀더가 6만원대 등이다.

한편, 질바이질스튜어트는 LF몰과 무신사를 통해 덤보 컬래버 라인을 출시하며, 협업 제품 구매 시 덤보 스티커를 소진 시까지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2월 28일까지는 무신사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는 LF몰에서 해당 라인 출시를 기념한 기획전이 열린다.

/원은미 기자

설화수

진설 메이크업 라인 출시

설화수에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진설 메이크업 라인을 출시한다고 25일 전했다.

설화수 진설 메이크업은 진설 스킨케어 라인의 '레드 트레저' 인퓨전 성분이 함유돼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유지한다.

쿠션과 파운데이션에 들어간 '레드 트레저' 인퓨전은 적층의 안티에이징 유효성분을 추출, 66배 강력하게 응축해 완성시킨 설화수 진설 라인의 핵심 성분이며, 여기에 활성 뷰티 사포닌을 6000배 농축한 진세노믹스(인삼의 유효 성분인 30여 가지 사포닌 중 피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를 더했다. 함께 구성된 액상 다이아몬드 파우더 성분은 어느 각도에서나 빛나는 메이크업을 선사한다.

얇고 매끈하게 피팅되는 텍스처가 주름 등의 결점을 효과적으로 커버하고 내 피부인 듯 자연스러운 광채 피부를 연출한다.

/원은미 기자

친환경 브랜드 '뱀포드', 국내 첫 매장 오픈

영 유기농 인증기관 인증 획득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올해부터 뷰티·라이프스타일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클린 뷰티 전문 편집숍 레이블씨(Label C)는 친환경·유기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뱀포드(BAMFORD)의 첫 매장을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컨템포러리 멀티숍 비이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레이블씨가 단독 매장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레이블씨의 대표 브랜드 뱀포드는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서울 백화점 2층에 174㎡(약 52평) 규모로 화장품, 의류, 잡화, 스파(SPA)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를 열었다. 뱀포드는 바다·스킨케어 등 뷰티 상품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의류 및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선보인다.

바다워시, 로션, 샴푸, 샤워오일은 성분 순도에 따라 ▲보태닉 ▲제라늄 ▲로즈 ▲자스민 등 4개 라인으로 구성했다. 페이스오일, 수분크림, 세럼, 엘릭서 등은 기능에 따라 ▲라이프 ▲어웨이크 ▲레스토어 ▲퓨리티 등 4개 라인으로 출시했다.

또 샴푸·세안제, 바다워시, 향수 등



영국 친환경 브랜드 뱀포드가 더현대서울에 최근 입점하며 국내 첫 매장을 오픈했다.

/삼성물산 패션

남성 그루밍 라인도 운영한다.

모든 뷰티·스파 상품들은 천연 또는 유기농 성분으로 제작됐고, 인증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영국 유기농 인증기관 토양협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뱀포드는 또 고급 천연 소재에 정통한 창립자 레이디 캐롤 뱀포드의 유기농 철학이 반영된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판매한다. 리넨, 코튼, 캐시미어 등 친환경 고급 소재를 사용한 아우터, 셔츠, 원피스, 이너, 팬츠 등 의류와 스카프, 타탄백, 캔들, 티컬렉션 등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내놓는다.

천연·유기농 스파 상품을 이용한 페이스케어, 바디케어 서비스의 스파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명상, 사운드힐링 등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웰니스 문화를 전파할 계획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SKT, 빅데이터 기술로 소상공인 돕는다

11번가·현대캐피탈과 혁신금융 서비스 최장 6개월 미래 매출액 예측해 선정

SK텔레콤은 11번가, 현대캐피탈과 협력해 혁신금융 서비스인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에 '자동 선정산'과 '미래 선정산' 서비스를 25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자동 선정산'은 판매금액의 80%를 매일 자동으로 정산해주는 서비스다. '미래 선정산'은 최장 6개월 분의 미래 매출을 예측해 한번에 지급하는 서비스다. 해당 선정산 서비스 2종은 SKT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 출시한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의 신규 서비스다.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은 11번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신용 평가로 대출이 불리했



모델이 '11번가 공식 선정산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있다. /SK텔레콤

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한도 상향, 이자 절감 등의 혜택을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SKT와 11번가, 현대캐피탈은 새롭게 추가되는 2종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 선정산'은 고객이 11번가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가 발송 완료하면 구매 확정 대기 상품의 판매금액 80%를 매일 자동으로 사전 정산해주는 서비스다.

2개월 연속 월 매출 30만원 이상인 판매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0.1%의 이용료로 제공된다. 최초 3개월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1년 약정 후 자동 갱신된다. 고객의 구매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추가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래 선정산'은 판매자의 최장 6개월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매출을 한번에 지급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업계 최대 수준인 7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온라인 신청 당일 입금이 이뤄진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AI면접 당락 결정은 '시기상조'



기지 수첩

채윤정 (산업부)

'이루다' 사태 이후 인공지능(AI)의 편향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최근 인택트 면접 방식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면접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면접이 채용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해 말 민간 기관 339곳, 공공 기관 93곳이 채용 절차에 AI 면접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은 AI 면접의 신뢰성이 부족한 만큼, 많은 기업과 공공 기관이 인적성 검사를 대체하거나 참고용으로만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전KDN 등은 AI 면접 점수를 전형에 반영해 당락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는 아직까지 어떤 입력 데이터가 결과에 기여했는지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라는 큰 한계를 갖는다.

공정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AI 면접에서, 특히나 민간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당락

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AI를 중요한 의사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AI의 설명가능성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이어져 왔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설명 가능한 AI'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 면접을 참고용으로 넘어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하나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택트' 현상으로 AI 면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그쳐야 한다. 실제 채용 결과 분석한 결과, AI 면접의 심사 결과와 사람 면접관이 합격생들에게 부여한 점수가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아직 AI의 판단 결과를 점수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탈락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공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AI 면접만으로 응시자를 평가한다면 공정성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18년 차별 문제로 애써 개발한 채용 시스템을 폐기해야 했던 아마존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echo@

현대차그룹, 미국서 최고 안전성 입증

현대·기아·제네시스 17개 차종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가 24일(현지시각)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5개 차종과 '톱 세이프티 픽' 등급 12개 차종 등 총 17개 차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7개 모델, 기아는 8개, 제네시스는 2개 모델이 선정됐으며, 현대차그룹은 이번 선정된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17개 차종의 이름을 올리면서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은 차종은 ▲제네시스 G70 ▲G90 등 2개 차종과 ▲현대차 팰리세이드, 넥쏘 2개 차종 ▲기아는 K5이다. 톱 세이프티 픽 등급에는 ▲벨



제네시스 G70. /현대자동차그룹

로스터 ▲쏘나타 ▲코나 ▲투싼 ▲베뉴 등 현대차 5개 차종과 ▲K3(현지명 포르테) ▲쏘울 ▲스텔라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 등 기아 7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2월 26일 (음 1월 1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열 번 생각하고 행동. **48년생** 지출을 해야 변화가 온다. **60년생** 비상금을 활용해서 일을 처리. **72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84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37년생 밤을 건다야 친란한 새벽을 본다. **49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 **61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마음껏 즐겨라. **73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85년생** 마른눈에 물들어 웃듯이 해결.

3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50년생** 가장 큰 복구는 자신의 성공 뿐. **62년생** 자식 자랑에 입이 침이 마른다. **74년생** 갈광한 포기가 일을 더 빠르게 진행 시킨다. **86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마음을 굳게 막자.

39년생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51년생** 시간만 축내는 일은 인제 그만. **63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 **75년생** 실력 있는 상사의 도움으로 성과가 높다. **8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일단 관망해야.

40년생 내가 편안해야 자식이 편하다. **52년생** 금전 문제로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64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76년생** 앞에 나서게 되니 타인의 질투를 받는다. **88년생** 병도 약도 내 탓임을 잊지 말아야.

41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 **53년생** 물은 담은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 **65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편하게. **77년생** 속이 흰히 들여다보는 거짓말에 속는다. **89년생** 미래를 위해 청약 저축을 가심.

42년생 나이 들어도 외모에 신경 써라. **54년생** 체면치레하다 지갑이 텅 빈다. **66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7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잘 못은 없는지 생각. **90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려서 지체.

43년생 일단 그물을 치고 고기를 기다려라. **55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67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79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91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마음으로.

44년생 증거는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56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68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80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 **92년생** 상대를 존중해주면 마음을 얻어 보람이다.

45년생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라. **57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뭉치면 먼저 하나 고민. **69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준다. **81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바라지 마라. **93년생** 아랫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니 유의.

46년생 구두쇠 작전은 옛말. **58년생** 길이 없는 곳에서 여행이 시작된다. **70년생** 생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82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마무리. **94년생** 공기가 좋지 않으면 마스크라도 쓰는 법.

47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 마무리. **59년생** 하찮은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게 행동. **71년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83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95년생** 먼 여행을 삼가고 낯선 사람과 언행 조심.



김상희의四季

액운이 길운으로

해가 바뀌는 설날 즈음에는 으레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다. 습관처럼 너도나도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한다. 누구에게나 복이 들어가면 좋은 일일 텐데 이 말을 조금 달리 생각해본다면 복은 살면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을 말한다. 인생의 좋은 일이다. 자기 인생에 많은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불교를 기반으로 할 때 이 말은 조금 달라진다.

'복 많이 받으세요'가 '복 많이 지으세요'로 살짝 형태가 달라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복을 짓지도 않고 바라거나 지어 놓은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큰 복이 들어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사주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운이 모두 복이 되어 들어올까. 조상공덕으로 운이 있을 경우라면 플라도 좋은 사주도 그런 일이 잘 생기지는 않는다. 선대에서나 당대거나 복을 짓는 일을 해야 재물이 복으로 바뀌어 들어온다. 지은 만큼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들어오는 복은 없다는 말이다. 복을 짓는 건 의외로 평소 시간 약속만 잘 지켜도 복을 짓는 것이며 생활하면서 남에게 양보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복을 짓기 위한 기도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나를 위한 기도와 불공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마음 한 번 더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꾸준히 복을 지으면 액운이 길운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불운이 힘을 잃고 행운이 힘을 얻는다. 올해부터는 인사를 살짝 달리 '복 많이 지으세요'로 해보는 것도 자신이 짓는 복의 크기만큼 받는 복덩이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박한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가량의 두뇌퍼즐 **사투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7		1	5		6
	1		2		5
		5	6	8	9
2	1			3	5
	6				4
5	9			1	2
		4	8	7	2
	2		4		1
1		3	2		4

3	1	7	8	9	5
7	2	6		9	1
5	3		8	4	6
		2	6		
9	6		7	2	8
1	9	5		3	8
2	4	8	7	3	1

정답

7	2	9	8	6	1
8	1	9	6	5	3
3	6	2	1	8	7
2	8	1	9	3	5
6	7	1	9	2	8
9	9	8	7	8	1
1	2	6	8	9	5
2	9	8	3	7	1
9	3	7	5	6	2

1	6	3	2	9	8
7	9	9	2	6	1
2	8	8	5	7	9
6	8	9	9	2	7
9	2	7	1	8	6
3	7	1	6	9	9
2	8	2	7	1	3
9	9	6	8	2	1

고난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정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6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744호	

비트코인 0.0243 한 병 주세요



안상미 기자
Why, wine

〈91〉비트코인으로 와인 구입

프랑스 보르도의 1등급 와인 샤토 라뚜르 2005 빈티지는 0.0234비트코인이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인 제임스 서클링과 로버트 파커가 각각 100점 만점과 99점으로 평가한 그 와인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널뛰기를 하다보니 정확한 원화 환산은 힘들지만 대략 1비트코인을 5700만원이라고 하면 샤토 라뚜르 2005 빈티지의 가격은 133만원이 되는 셈이다.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표시된 977.60 유로(원화 약 132만원)와 비슷하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광풍이 불면서 와인업계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와인 판매업체들이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속속 추가하면서다.

시작은 프랑스 보르도에 본사를 둔 BTC 와인이다. 와인 무역업체인 라세르&파피용(Lasserre&Papillon)이 비트코인으로 와인을 살 수 있는 온라인 마켓으로 만든 곳이다. 6병에서 12병 단위로 와인을 주문하면 원목 상자에 안전하게 포장돼 전 세계 어디에서도 15일 안팎이면 받아볼 수 있다. 비트코인(BTC)을 비롯해, 비트코인캐시(BCH),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CDC코인(CRO), 리플(XRP)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BTC 와인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샤토 르팡 2009 빈티지와 페트뤼스 2015 빈티지다. 둘 다 제임스 서클링과 로버트 파커로부터 100점의 평가를 받았다. 가격은 샤토 르팡 0.1284 비트코인, 0.1194 비트코인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1 비트코인 5700만원 기준 각각 약 732만원, 681만원이다.

초고가의 와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BTC 와인에서 가장 저렴한 와인은 보르도 그랑크뤼 2등급 와인인 사르제 드 그리오 라로즈 2017 빈티지다. 한 병에 0.0047비트코인으로 한화 약 27만원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강세를 기념하기 위해 '비트코인 라 퀴베'라는 이름을 붙인 와인도 내놨다. 생페밀리옹 그랑크뤼와 마고 와인 2병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각각 0.0058 비트코인이다.

BTC 와인이 가상화폐 결제를 시작한 것은 뉴 테크로 부를 쌓은 '신흥 부호'를 잡기 위해서다.

유럽 주류 전문지 드링크인터내셔널에 따르면 BTC 와인 관계자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쓰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대상"이라며 "그들은 쌓은 부로 자동차와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고급 와인으로 이동하기 때문

에 우리에게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고급 와인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미국의 관세 인상과 브렉시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BTC 와인은 비트코인 강세로 판매가 오히려 늘었다.

온라인 소매업체인 르밀레짐 파리(Le Millesime Paris) 역시 비트코인으로 와인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르밀레짐 파리는 USDC나 USDT 등 스테이블코인까지 결제가 가능해 쓸 수 있는 가상화폐 범위가 더 넓다.

BTC 와인이 처음 문을 연 것은 비트코인 1차 광풍이 불던 지난 2017년이다. 당시 비트코인은 100만원 안팎에서 연말까지는 2000만원까지 치솟았다. BTC 와인이 당시 와인 판매대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2배가 넘는 수익을 냈다.

당신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샤토 라뚜르를 사기 위해 비트코인과 유로, 둘 중 무엇으로 결제할 지 말이다.

/smahn1@metroseoul.co.kr

더페이스샵 "마스크시트 맞춤 관리하세요"

'더솔루션 더블업 마스크시트' 7종 피부별 맞춤 솔루션 리뉴얼 출시



LG생활건강의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피부 고민에 따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더솔루션 더블업 마스크시트' 7종(사진)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2016년 출시 후 누적 판매수량 2500만장을 돌파한 '더솔루션 마스크시트'를 리뉴얼한 것이며 피부 고민별 맞춤 솔루션 성분의 함량이 기존에 비해 2배 높아졌다.

수분·미백·진정·모공·보습·탄력·영양 등 피부 고민에 따라 일곱 가지의 마스크시트 중에서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생활건강 특히 성분인 아미노필을 적용, 유효 성분 전달을 방해하는 각질 케어에 도움을 준다.

대표 제품인 '더솔루션 더블업 탄력 마스크'는 기존 더솔루션 마스크시트 대비 2배의 콜라겐 성분을 함유한 처방으로 피부에 탄력을 선사하며, 극세사 포함 3종 원사 혼방의 에어-실크 핏 시트를 사용해 밀착력을 높였다. 밀크 에센스 타입의 보습·탄력 마스크에도 동일한 원단이 적용됐다. 이외에도 워터 에센스 타입의 수분·모공·미백·진정 마스크는 셀룰로오스 섬유로 가볍고 투명하게 밀착되는 에어-워터 핏 시트가 적용됐다. 제형별로 차별화된 사용감을 구현한 것이다. /원은미 기자

롯데免, 무착륙비행 상춘객에 선물 '풍성'

제휴머니, 사은품 등 증정 행사 캐리어 경품 등 추첨 이벤트도

롯데면세점이 무착륙관광비행 제휴 항공사를 확대하고 더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25일 전했다.

롯데면세점 전점에서는 3월 무착륙관광비행 탑승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LDF PAY 최대 60만원을 선사한다.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는 제휴머니 최대 540달러를 포함해 총 1550달러를 증정한다.

또 이용 항공사 및 좌석 등급에 따라 롯데인터넷면세점 멤버십 회원 등급을 퍼플 등급 또는 최고 등급인 블랙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혜택을 진행한다. 여기에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서울, 티웨이 이용 고객은 간편결제서비스인 토스로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3%(최대 1만원)를 토스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과 단독으로 제휴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탑승

객에게는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용 항공사에 따라 아베다 헤어 제품, 램시리즈 클렌저 샘플, 루나슬 스킨케어 세트, 비슈·라로슈포제 스킨케어 세트 등 인기 뷰티 브랜드의 제품이 제공된다. 대한항공 탑승객 대상으로는 기내 추첨 이벤트를 통해 프리미엄 캐리어 브랜드 리모와의 캐리어를 경품으로 줄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3월부터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리고 저가항공(LCC)인 진에어와 면세쇼핑 제휴를 확대한다. 이로써 무착륙관광비행을 운영하는 모든 7개 항공사 라인업을 구축해 면세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제휴 항공사를 보유하게 된다.

롯데면세점과 제휴한 무착륙관광비행은 3월에 총 22편이다. 탑승객은 기본 600달러 면세품에 추가로 술 1병(1l·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허용하는 해외 여행자 면세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원은미 기자

와인에 빠진 GS25... 특화 매장 '출격'

'와인25플러스 플래그십 스토어' 서울 역삼홍인점에 1호점 오픈 와인 130종 등 주류 300종 마련

GS25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며 국내 최고의 주류플랫폼에 도전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25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GS25 역삼홍인점을 '와인25플러스 플래그십스토어' 1호점으로 오픈했다.

지난해 7월 론칭한 GS25의 주류 스마트오더 시스템 '와인25플러스'가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은데 따른 것이다. 와인25플러스의 올해 1월 1일~2월 23일 매출 및 주문건수는 지난해 8월 1일~9월 23일 대비 각각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25 와인25플러스 플래그십스토어 1호점에서는 와인25플러스의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수상품 약 300여종을 취급한다. 카테고리별로 와인이 130종, 양주와 하드리쿼가 130종으로, 일반매장보다 약 5배 가



GS25의 와인25플러스 플래그십스토어 1호점 역삼홍인점 매장에서 한 고객이 하드리쿼 주류를 살펴보고 있다. /GS리테일

량 많다. 고객들은 플래그십스토어에 비치된 전용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제품 카탈로그를 살펴보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

GS25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고객을 연계해 상호유입 시너지를 창출하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스마트오더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GS25는 와인25플러스의 인기와 더불어 올해 말까지 주류특화매장을 약 2000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와인25플러스의 베스트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주류플랫폼을 전국에 구축하는 것은 물론, 프리미엄 주류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즐기려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안재성 GS리테일 주류담당 MD는 "앞으로 GS25는 전국 1만5000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홈플러스, 슈퍼 주문도 1시간 '즉시 배송'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 개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통해 고객 주문 상품을 1시간 내로 즉시배송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온라인' 서비스를 26일부터 개시한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보다 고객 가까이 위치한 슈퍼마켓에도 올라인(All-Line, Online과 Offline의 합성어) 모델을 적용해 촘촘한 배송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객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형마트보다 슈퍼마켓을 선호하고, 슈퍼마켓에서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을 많이 구매한다는 트렌드를 집중 공략한다. 집 근처 슈퍼마켓의 싱싱한 식품과 다양한 가정간편식(HMR)을 빠르게 배송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킨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 253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영점에서 실시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기존 영업 중인 매장에서 배송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35개 도시 고객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인근(반경 2~2.5km 내) 고객이 홈플러스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즉시배송' 코너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의 피커가 상품을 골라 배송하는 방식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배송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2만원 이상 주문 시 배송이 가능하며 3000원의 배송비가 발생한다.

구매 상품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가정간편식까지 약 3000개 상품으로 구성됐다. /원은미 기자



MASERATI



ALMANAC 070-7840-1715
www.almanac.kr

부산시, 3552억 투입 미세먼지 줄인다

예산 73% 증액... 저감대책 추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5월 시행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도 줄여야

부산시는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2021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보다 19% 감소한 17 $\mu\text{g}/\text{m}^3$ 로, 좋음일수가 전년 대비 56% 증가했고 고농도일수는 89% 감소해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정책을 시행한 것과 코로나19 영향,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보다 73% 증액된

3552억원을 투입해 부산의 특성을 감안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및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 저감을 위한 맞춤형 저감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존(Zone)별 맞춤형 관리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를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 산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 $\mu\text{g}/\text{m}^3$ 로 줄이기 위해 부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오는 5월에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공항 운영자도 '대기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항선 뿐만 아니라 내항선도 올해 선박검

사일부터 황함유량이 기존 3.5%에서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과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항만 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도 강화해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또, 내년까지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도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년까지 총 2만5000대

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2만 2000대에 대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1만대, 수소자동차 4600대 구매를 지원한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통해 공단 내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해 공단지역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청소도 확대한다. 대기오염 측정망도 확충해 대기질 분석체계의 정확도도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스쿨존 내 도로먼지 제거 차량운행을 확대하며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도 지원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지난 2019년 신안군 섬 툐립축제장 모습.

신안군, 코로나19 여파 2021 섬 툐립축제 취소

신안군은 4월 중순 개최 예정이던 2021년 섬 툐립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살펴보고 비대면 랜선축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3차 대유행 이후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툐립축제가 열리는 입자도는 3월 입자대교 개통과 함께 지리적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수많은 상춘객들이 입자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입자도 방문 자제 홍보와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도 툐립 개화 전 꽃봉오리를 제거해 상춘객들의 현장 방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에 방역초소 등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할 방침이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예천군, 신규기업·근로자 정착 지원

1년간 대출이자 2% 보전

예천군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돋우고 지속가능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취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며 '기업이 찾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간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제2농공단지 20필지를 분양 완료했고 올해 잔여필지(5필지) 분양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으로 신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와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용자 추천해 1년간 대출이자 2%를 보전하는 등 경영 안정을 위해 힘쓴다.

1억여 원 사업비로 중소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 사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천군 관내 수출기업에 1억 원을 들여 수출기업 홍보 컨텐츠, 시제품 제작, 제품포장 및 물류 지원, 통번역 등을 지원한다.

2023년 조성 완료 예정인 제3농공단지(보문면 신월리 일원 예정)조성을 단계별로 진행해 농촌 지역 균형발전과 저렴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우리 예천군이 가진 강점과 신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유치활동을 펼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투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경북)=김귀열 기자



임청각 앞 철로. 일제 강점기, 안동의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앞에 놓인 철로가 약 80년만에 철거됐다.

독립운동가 이상룡 생가 안동 임청각 복구 가시화

2025년까지 280억 들어 원형복구

안동에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안동댐 초입에 있는 임청각(臨淸閣·보물 182호)이다.

임청각은 일제 강점기에 거국음(去國吟, "이 땅에 적의 그물 쳐진 것을 보았으니 어찌 대장부가 제 한 몸을 아끼랴")을 읊조리며 53세의 나이에 만주로 향해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석주 이상룡의 생가이다.

석주 이상룡은 1858년 11월 25일 안동 임청각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상희였다. 한말 퇴계학통의 유학자로 고성 이씨 17대 종손이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상실되자 1911년 1월 5일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조상 신주를 땅에 묻고 힘을 길러 나라를 찾겠다고 고향을 떠났다.

만주로 망명 후 서간도 최초의 독립운동 조직인 경학사를 만들고 훗날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1913년 독립자금에 부족하자 대종택 임청각을 팔아 군자금으로 보냈다.

1925년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에 추대됐다. 하지만 끝내 조국 독립을 보지 못하고 중국 지린성에서 1932년 숨을 거뒀다.

자신을 비롯해 3대에 걸쳐 11명이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며 조국 독립의 밑거름이 됐다.

1990년이 되어서야 그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고 2009년이 되어서야 국적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일제가 임청각을 반 토막내며 가로질러 설치한 철로가 철거됐다. 이제 임청각 복원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안동시는 2018년 임청각 복원 계획을 수립했고, 2025년까지 280억 원의 예산으로 임청각을 원형의 모습으로 복구하고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임청각 복원을 통해 아픈 역사를 청산하여 진정한 독립을 이루고, 기득권을 포기하며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본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학습장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안동(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경북 '보이소 TV' 유튜브 채널인증 배지 획득

경상북도 공식 유튜브 '보이소 TV'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유튜브 채널 인증 배지'를 획득했다.

유튜브는 물론 SNS 전 채널 모두 인증 배지를 보유한 건 경북도가 유일하다.

'인증 배지'의 획득 요건은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튜브 본사(구글)에서 채널의 운영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진위성, 완전성 등 일정 자격을 심사해 부여한다. 인증배지를 받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보이소 TV가 최초다.

유튜브 측은 채널이 인증되면 기관의 공식 채널로 공인되는 것이며 이름이 유사한 다른 유튜브 채널과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증 배지는 현재 PC 버전에서만 제공, 모바일은 추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경북=김귀열 기자

광양시 '사회책임 이행 평가' 전남 1위

총점 660.67점 받아

광양시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사회책임 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CSR연구소와 넥스트데일리 공동으로 주관해 지난 22일 발표한 '2021 대한민국 지자체 사회책임지수' 평가에서 광양시는 1000점 만점에 총점 660.67점을 받아 전라남도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는 전국 지자체가 지방정부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

졌다.

이번 평가는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50만 명 이상'에서 '4만 명 미만' 총 7개 구간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 평가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TBL(경제·사회·환경성과) 모델을 바탕으로 '삶의 질(450점)'과 '여건 및 책임(550점)' 2개 부문으로 구분해 측정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지표 결과는 광양시가 시민공동체를 위한 소통과 상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아이부터 청년, 은퇴자까지 모든 세대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유입과 유지에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iaacecom@

‘서울시민옴부즈만’ 아는 시민 절반뿐...

“옴부즈만·조사관 전문성 강화해야”

시민의 편서 고충 해결·행정 감시 위원회 처음 들어본 시민 13.7%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돼야”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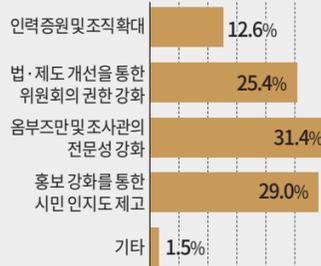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23일 온라인 패널 2894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는 시민의 편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에 1996년 1월 시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됐다.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위원회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53.6%)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기관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32.7%, ‘처음 들어보며, 위원회가 뭘지 전혀 모른다’는 13.7%였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민원배심제 ▲공공사업 감시·평가가 있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무에 대한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 설문조사



자료/서울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조사하고 공공사업 진행과정을 낱낱이 살펴 부조리를 차단한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기관임에도 ‘위원회를 이용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93.1%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의 6.9%만이 위원회를 이용해본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이 이용해본 위원회 업무(중복 응답)는 고충민원 제기(응답소, 서면 등)가 50.6%로 절반에 이르렀다. 시민·주민 감사 청구(47.1%), 고충민원 전화·방문 상담(39.5%), 민원배심제(12.8%)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가장 활성화돼야 하는 위원회 기능으로 ‘공공사업 감시·평가’(46.1%)를 꼽았다. 위원회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옴부즈만 및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가 31.4%로 응답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 인지도 제고’(29%), ‘법·제도 개선을 통한 위원회 권한 강화’(25.4%), ‘옴부즈만·조사관 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12.6%) 순이었다.

현재 위원회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응답자들은 위원회 시민 참여 제고 방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감사청구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42.9%), ‘인터넷·SNS를 활용한 위원회 홍보 확대’(22.7%), ‘주민 모임 방문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과 소통 강화’(19.3%),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활성화’(14%)를 제안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서울시정 감시와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48.9%였다.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24.7%, 잘 모르겠다는 20.3%,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6.1%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딜쿠샤 전시관 전경.

/서울시

3·1운동 알린 美 특과원 가옥 ‘딜쿠샤’ 개방

서울시 매주 화~일요일 운영

서울시는 3·1운동을 전세계에 알린 미국 연합통신의 임시특과원 앨버트 테일러의 가옥을 ‘딜쿠샤’ 전시관으로 만들어 삼일절에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딜쿠샤의 주인 ‘앨버트 W. 테일러’는 1896년(고종 33) 조선에 들어와 평안도 운산 금광 감독관을 지내고 충청도의 직산 금광을 직접 운영한 광산 사업가였다. 연합통신 임시특과원으로 활동하며,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

을 해외에 보도해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공헌했다.

시는 앨버트 테일러가 살던 집인 ‘딜쿠샤’의 원형을 복원해 독립의 숨결을 기억하는 역사 전시관으로 조성했다. 딜쿠샤는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위치한 ‘딜쿠샤 전시관’은 총면적 623.78㎡(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오는 3월 1일 문을 여는 딜쿠샤 전시관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 당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계획안 통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 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지하 6층, 지상 2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지하 2층에는 영화관,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생긴다. 2개동의 도시형생활주택 192가

구와 오피스텔 40실도 마련된다. 착공은 9월, 준공은 2024년 8월로 예정됐다.

사업부지는 지하철 2·9호선 당산역에 접해 있다. 여의도-합정(신촌)-강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고층에서는 한강, 여의도, 남산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교통난 해소 ‘GTX’... 환승거점 추가 요청

서울시, 국토부에 3곳 신설 건의 서울 중심부 목적지 비율 60%

서울시는 관내 광화문·동대문·왕십리역 총 3곳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거점을 더 만들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목적으로 A, B, C 3개 노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환승거점 추가 신설 요청을 한 곳은 GTX-A노선 광화문(시청)역, B노선 동대문(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C노선 왕십리역이다.

현재 GTX-A노선은 총 10개 정거장으로 계획돼 서울시내 수서·삼성·연

신내·서울역을 지나게 돼 있다. B노선은 13개 정거장으로 관내에서는 신도림·여의도·용산·청량리·망우·서울역을 통과한다. C노선의 정거장은 총 10개이며, 서울에서는 양재·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이 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 의하면 서울 도심까지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나 환승을 통한 실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방안에는 충분한 고려가 부족해 향후 수도권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 정거장을 선정해 건의했으며 향후 추가 정거장이 생기면 수도권 외곽에서 장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승객들에게 편리한 GTX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

민의 절반 이상이 도심으로 이동하며, 서울 중심부를 관통해 이동하는 비율은 낮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2019년) 결과에 따르면 파주·고양 축(GTX-A노선)의 경우 서울 중심부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목적지인 비율은 약 60%로 높았고, 도심을 지나 서울남부(한강 이남)까지 이동하는 통행 비율은 18.2%에 그쳤다고 시는 덧붙였다.

GTX 이용객의 서울시내 주요 정거장 환승 비율은 71%에 달했는데 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정거장에서 하차해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시 지하철 등 교통수단으로 추가로 환승해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 계획을 보완해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수도권 이용객을 위해서는 주요 환승 거점 정거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백신 접종 지원 ‘119신속대응팀’ 배치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5명 등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이달 23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119신속대응팀을 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소방력은 구급대원 5명과 구급차 1대다.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대원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백

신 접종, 센터 운영지침 작성을 포함한 사전준비와 응급상황 환자 이송 업무를 지원한다. 이들은 또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 대피유도 같은 사고대응 임무도 맡는다.

본부는 백신 접종 관련 소방력 지원 외에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소방서, 구청, 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화재 취약요인을 살폈다.

아울러 본부는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화재 예방 안전컨설팅, 소방차를 이용한 순찰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본부는 서울 종합방재센터-소방서-중앙예방접종센터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현지 적응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본부는 내달 중 설치되는 성동구 지역접종센터에도 소방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첫 삽’

파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학병원과 혁신의료연구단지를 건립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파주시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설립을 완료하고 사업의 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제)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서패동 일원

에 조성, 총 사업비 1조 6520억 원이 투입되며 ▲종합의료시설(대학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의료바이오R&D센터 ▲바이오융합단지 ▲배후지원시설을 건립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승인(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받아 2022년 실시계획승인 및 토지보상 이후 공사에 착공해,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설공사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산업] 현대제철 친환경 시대 先 대응 경량화·솔루션 개발 06



Life

[라이프] "신학기 강자는 나" 유통업계, 패션용품 프로모션 확대 11



50년 노하우, 2년새 성인영양식 석권 부족 단백질 채워주는 '셀렉스' 헬스족·홈트족도 매일 '셀렉트'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매일유업 '셀렉스'

매일유업 셀렉스가 출시 2년여 만에 단백질 성인영양식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2018년 10월, 성인영양식 시장을 개척하며 출시된 셀렉스는 2021년 현재 누적매출 800억원을 돌파했다. 2019년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셀렉스는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최다 생산실적을 기록, 단백질 성인영양식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50년 축적된 노하우 집약 결정체

불과 2년여 만에 매출이 급성장한 것은 단순히 셀렉스가 블루오션을 개척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매일유업의 선도적인 연구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몸은 600여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0대 이후부터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중년기에 접어든 후에는 현저하게 감소한다. 건강한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몸무게 1kg당 1.0~1.2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60세 이상 2명 중 1명 이상은 하루 권장량 이하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

고령화 핵심 문제 '근감소증'에 주목 영양설계 노하우로 성인 영양식 출시

매일유업의 성인영양식 '셀렉스'는 이러한 성인 식습관 연구 결과와 50년 동안 축적한 과학적 영양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매일유업은 지난 2014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평창군 보건의료원 등과 함께 '평창 코호트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성장 가능성이 큰 성인영양식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식품업계 최초로 2018년 고령화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는 '근감소증'을 연구하는 사코페니아연구소를 설립했다.

'셀렉스 코어프로틴 플러스'는 근육 영양을 위한 단백질 20g, 류신 3000mg, 비타민D800IU 황금비율 설계는 물론, 국내 최초로 한국인 대상 인체적용 시험을 적용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또한 100% 완전 단백질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9개 필수아미노산을 모두 함유, 아미노산 스코어 110점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대비 129%를 상회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우유 대비 유당량을 1/10로 낮췄고, 단백질 소화를 교정 아미노산



셀렉스 매일마시는프로틴.

/매일유업

점수가 모두 만점인 3종의 단백질을 사용해 소화도 편하다. 특히 필수아미노산 '류신(부원료)'은 근육 합성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쓴맛으로 인해 고용량을 함유한 제품이 드물다. 류신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외부로부터 섭취가 필요한데, 매일유업은 류신의 쓴맛이 도드라지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약 10번의 관능검사를 진행했다.

◆헬스족부터 초심자까지 다양하게 선택

셀렉스 코어프로틴으로 성인영양식 시장을 개척한 셀렉스는 스포츠 시장 공략을 위해 2020년 '셀렉스 스포츠 웨이프로틴' 분말제품과 RTD 음료를 출시했다. 셀렉스 스포츠 제품 라인인 지방·유당을 제거해 순도 높고 흡수가 빠른 100% 분리유청단

백질을 사용, 칼로리가 낮고 맛이 깔끔하다. 이 때문에 운동을 즐기는 헬스족을 비롯해 운동 초심자, 홈트족 등에도 인기가 높다. 분말 형태와 RTD(레디 투 드링크) 두 가지 형태로 출시돼 선택의 폭도 다양하다.

스포츠 라인, 헬스·홈트족에 인기 분말·RTD 형태로 선택의 폭 다양

매일유업은 셀렉스 브랜드 출시 이후,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셀렉스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셀렉스 챌린지는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12주간 셀렉스 제품과 함께 홈트레이닝 영상, 운동 소도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내에 헬스플래너(영양사 자격증을 보유, 스포츠 영양사 과정을 수료한 영양 전문가) 전담 인력을 배치해 건강한 식단 관리, 1:1 맞춤형 근육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셀렉스 챌린지는 현재까지 총 5회 운영되어 전체 참여자는 662명이다. 참가자 중 목표치를 달성한 직원들은 평균 4.8kg의 체지방을 절감했고, 1.32kg의 골격근량을 증량했다. 매일유업은 높은 성과를 통해 입소문인 셀렉스 챌린지 프로그램을 향후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맨발투혼' 담은 용기와 희망 전해

매일유업은 성인영양식이라는 혁신적인 카테고리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존과 다른 포맷의 마케팅을 진행했다.

박세리 모델 기용, 국민에 응원 전달 성인 영양설계 브랜드로 성장시킬 것

2019년 론칭한 '셀렉스 대반전 드라마' 캠페인은 생활 속에서 근육이 필요한 순간을 짧은 드라마로 코믹하게 구성,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전한다. 셀렉스의 주요 고객인 중장년층 소비자에게 친숙한 TV드라마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제품의 강점을 유쾌하게 풀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 캠페인은 '2020 유튜브 워즈 어워즈'에서 '베스트 신규 브랜드 런칭상'을 수상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2020년에는 전직 프로 골프선수이자 국가대표 골프 감독인 박세리를 모델로 기용, 1등 단백질이라는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박세리 감독이 과거 '맨발투혼'을 통해 IMF 외환위기 시절 고단했던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가는 국민에 응원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 셀렉스 브랜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품에서 영양설계 전문 브랜드로

매일유업은 단백질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 셀렉스를 '성인 영양설계 전문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단백질 제품 외에도 건강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매일유업은 지난 10월에는 우유에서 100% 추출한 밀크세라미드 성분과 저분자 콜라겐을 함유한 이너뷰티 신제품 '셀렉스 밀크세라미드'를 선보였다. 콜라겐과 세라미드를 함께 섭취하고 있는 해외 이너뷰티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 결과 속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셀렉스 코어프로틴 플러스.



박세리가 출연한 셀렉스 디지털 광고.